

서른세 번째 우리시대 .. 사랑

제 68대 철학과 학생회

인사말

홍윤기 교수 축사

비를 맞고 있는 ‘사랑’에 들어가는 두 몸짓

- 트윈폴리오의 ‘비의 나그네’와 BTS 정국(JK)의 ‘Still with you’를 들으며

인류가 언어를 써서 자신의 행위를 기술하고 규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코로나 팬데믹을 휘감으며 제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가는 21세기 현재까지 거의 반만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사랑을 해왔다. 하지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은 없을뿐더러, 그에 대한 응답 역시 시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두 다르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정의는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인식론적 맥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치 과학의 법칙이나 이론처럼 파악할 수 없는 반면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대해 묻거나 대꾸하고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으며, 더욱 신기한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거나 말할 수는 없어도, 하려고 들면 인간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즉 사랑은 인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더불어 있는 인간들, 나아가 이런 인간에 준하는 그 어떤 상대물만 있으면,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려고만 들면, 인간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 인간의 체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마치 그 어떤 정답을 알아내듯이, 철학자 티를 팍팍 내면서 거만하게(?) 사랑에 대해 입장설교 하듯이 말하려드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일이다.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자기가 몸소 나서서 스스로 사랑을 하던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안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경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해와 공감 아니면 동감을 갖

고 사랑에 대한 공체험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랑을 얘기하면 거의 습관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 연상된다. 사랑하면 어쩐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고 그 비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꼭 있는 것 같게 느껴진다.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비가 오는 날 데이트 하기에 극히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어 이런 날 직접 데이트한 기억은 없는데 비가 오면 어디선가 젖을 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생각한 적은 많다) 그런데 지난 세기 70년대 트윈폴리오의 송창식이 부른 ‘비의 나그네’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최근에 BTS의 정국(JK)이 부른 ‘Still with you’에 다같이, 비가 오는 날, 비 오는 풍경을 보면서, 그 누구에 대한 생각이 비처럼 자신을 적시는 장면이 나와 참으로 다사로움을 느끼는 ‘사랑의 체험’을 겪은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님의 발자국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밤비 따라 왔다가 밤비 따라 돌아가는
내님은 비의 나그네

— 송창식, ‘비의 나그네’ 전반부 (이장희 작사·작곡)

날 스치는 그대의 열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 주세요
얼어버린 노을 아래 멈춰 서 있지만
그 대 향해 한걸음씩 걸어갈래요
Still with you

...

황홀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걷힐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안아줘

- 정국(JK), 'Still with you' (빅히트의 PIDDOG과 정국의 공동 프로듀싱)

송창식의 '님'이나 정국의 '그대' 모두, 비와 어둠 또는 비와 안개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가창자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 가창자들이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송창식의 '님'은 자기를 두고 노래 부르는 이와 가까운 곳에서 자신이 있다는 소리를 빗속에 섞고 있지만 자기를 두고 노래 부르는 이와 합치할 생각은 없는 듯이 보이고 이 '님'이 그리워 노래 부르는 이도 자신의 '님'에 다가가 손이라도 맞잡을 뜻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이 밤에 내리는 비 안에서 노래부르는 이는 '님'과 이 밤비 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그윽하게 젖게 만들고 있다. 이에 반해 정국의 노래에서 노래부르는 이에게 비와 안개는 명백하게 '그대'에게 가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며, 이 방해물만 걷히면 바로 가서 안을 것이 '그대'이다. 정국에게는 비와 안개가 아니라 정말 절절한 것은 '그대'이다.

어느 면에서 이 반세기동안 우리의 심리 문화에서 아무리 그리워도 그리워하는 것 말고는 껴안을 수 없는 그런 '님'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온 것처럼 보인다.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가서 분명히 껴안을 수많은 '그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 누군가의 '그대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갖고 싶어도 가질 것이 없어서 소망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으로 때우던 서글픈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질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럴 때를 맞은 나의 그대들에게 감연히 말하겠다.

이 좋은 시절 가장 좋을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남으니까!!!

2021년 11월 5일

디오니소스 축제를 바라보며

우리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홍 윤 기 바칩

제68대 철학과 학생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철학과 학우 여러분. 학생회장 ‘윤준혁’이라고 합니다.

올해 디오니소스제 주제는 ‘사랑’이군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단어, 사랑. 그렇기에 그 끝을 맞이했을 시 더욱 허무에 빠지게 하는 사랑. 그 알곳음에 애써 사랑을 부정해보다가도 다시 그 따듯한 온정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사랑이라는 주인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져 계신가요? 가슴에 사무치는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러한 사랑에 빠져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랑을 ‘발견’해 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러한 일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음식을 먹는 것, 사랑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삶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에 의해 가능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이 별거일까요. 우리 삶을 긍정하고 그러한 삶의 원동력으로써 작용하는 알 수 없는 무엇,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져 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

랑에 빠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젊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언젠가는 종국을 맞이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학우 분들 모두가 가슴 안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디오니소스제를 위해 힘써주신 디오니소스제 기획단 여러분, 늘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저의 글을 읽어주고 계시는 모든 철학과 학우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제나 사랑 넘치는 일들만 주위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디오니소스제 학회장 인사말

"사랑'이라고 쓰니까, 그 뒤가 써지지 않는다."

일본의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는 『사양』이란 소설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랑에 대해 느끼고, 듣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사랑'을 논하려고 하면 이내 말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너무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혹은 사랑이 너무 낯설고 먼 것이어서 그런 걸까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번에 『우리시대』의 기획글을 위해 여러 선생님들과 인터뷰와 문답을 진행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데 대단히 낯설어 하시거나 어려워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만, 혹은 우리만 어려워하는 주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다소 안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가사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 이다지도 난해할 수 있다니요.

그럼에도 동국철학의 학우 여러분과 선생님들께서는 사랑에 대한 말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번 『우리시대』는 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기록은 개인의 역량을 아득히 벗어나는 작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우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동국철학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뷰와 글쓰기와 기획과 회의로 고생하신 강유찬, 김아연, 조승우 디오니소스제 준비단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유구한 역사의 디오니소스제가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11월

마흔두 번째 디오니소스제 학회장

박성진 올림

목차 :

인사말

홍윤기 교수 축사	4
제68대 철학과 학생회장 인사말	8
디오니스제 학회장 인사말	10

기획글

코로나 시국, 만나기를 기대하며	16
교수님께 듣는 사랑 :	
유현우 교수 인터뷰	25
허유선 교수 인터뷰	35
장운혁 교수 인터뷰	45
김진선 교수 인터뷰	59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	
박민미 교수의 답변	67
심지원 교수의 답변	69
김영진 교수의 답변	70
학부생 인터뷰 :	
유준상, 최홍석 학우 인터뷰	73
김준호, 이윤지, 차정환 학우 인터뷰	81

학부생 논문과 논평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다중적 의미 - 박성진 (본교 철학과 4학년)	89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다중적 의미」에 대한 논평 - 조지환 (서울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석사과정)	105
경험 기계에 들어갈 것인가? - 이수안 (본교 철학과 1학년)	115
「경험 기계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평 - 강유찬(본교 철학과 2학년) ·	131

자유글

사랑의 가족 - 권순용	139
열정 - 김기동	141
사랑하며 살자 - 최홍석	146
일기 같은 것을 접으며 - 옥승주	149
사랑 - 이윤지	171
사랑, 실존과 본질 사이 - 조승우	173
사랑과 우정 사이 - 최민수	178
환경이 돈 벌어다 준다 - 김아연	181
강릉 기행문 : 속세를 떠납니다 - 박성진	184
battery love - 권순용	188
‘사랑’에 대한 소고들 - 익명	189

디오니소스제 준비단의 디오니소스제 / 『우리시대』 후기	1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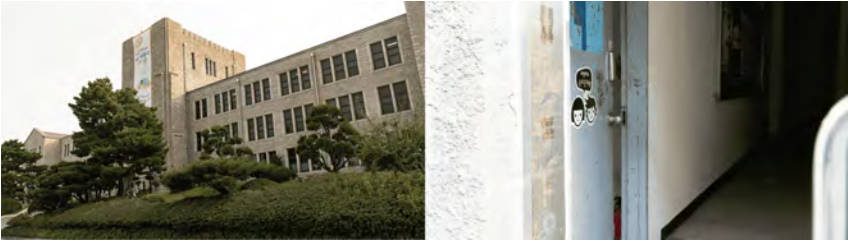
디오니소스제 연혁	203
-----------------	-----

기획글 : 코로나 시국, 마주보며 만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 학번, 20학번과 21학번들은 학교를 온 횟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디오니소스 준비단 중 일부 또한 그리던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본 글은 대면수업을 위해 낯선 학교에 올 학우들을 위해, 혹은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학교를 오지 못해 학교의 근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글: 강유찬, 김아연, 박성진, 조승우(디오니소스제 준비단) / 사진: 권순용

1. 명진관(좌), 철학과 과방(우)



#1958년_건립, #과방은_지하에, #등록문화재735호

강유찬 :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과방을 못 찾아 구과방을 갔던 기억이...

김아연 : 우리학교 명진관 하나는 정말 기갈난 것(혹시 이 표현 너무 하다면 멋지다고 바꿔주세요)같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면 모두 함께 과방에서 봐요! 과방 비밀번호는 6363...

박성진 : 동국대 서울캠의 마스크트 같은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승우 : 멋진 외관에 속았습니다.

2. 상록원



#학식_꿀맛, #버거킹, #교수식당, #바로뒤_남산

강유찬 : 저는 김치 철판 삼겹살밖에 못 먹어봤는데 학우님들의 다양한 최애메뉴가 궁금하네요

김아연 : 비빔밥이 맛있었습니다.

박성진 :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학식 돈까스의 맥이 끊겼다는게 너무 아쉬워요

조승우 : 학식 사주세요 여러분.

3. 대운동장



#코로나 끝나면 축제할지도?, #경기구, #운동

강유찬 : 대운동장에서 축제 보기... 졸업전에는 할 수 있기를

김아연 : 언젠가 마스크 벗고 인사할 날이 오겠지요? 대운동장에서 저희 나중
에 철학과 축구일짱 뽑아야합니다...(현재 위치 21학번 축구 삼짱)

박성진 : 여기서 빈지노랑 10CM 공연을 본게 생각나네요.

조승우 : 축구 한 판 합시다.

4. 정각원(좌), 혜화관과 사회과학관(우)



#승정전, #교양강의, #혜화관옥상

강유찬 : 면접 볼 때 봤던 경치들.. 그때 혜화관 앞에서 철학과 면접이냐고 여
췌보시고 간식 주시던 선배님들이 기억이 나네요.

김아연 : 학교 그래도 꽤 왔는데 이쪽은 보기만 하고 잘 안 와 본 것 같습니
다. 학교로 수업 들으러 가면 많이 지나가겠죠? 함께 108배 해요!

박성진 : 이쪽 즈음이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뷰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조승우 :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5. 장충단공원



#수표교, #장충체육관, #동대입구역, #국립극장

강유찬 :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만 외박서 언젠가는 동기들과 오는 날을 고대하며...

김아연 : 장충단공원 푸르고 좋더라구요. 나중에 야외 음주합시다!

박성진 : 가끔 힐링하러 오기에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조승우 : 산책하기 좋을 듯 싶습니다.

6. 팔정도, 코끼리 분수대



#八正道, #필수_포토존, #모든길은팔정도로통한다

강유찬 : 동국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불교적인 경치네요. 저 코끼리 상 한번은 올라타 보고 싶네요

김아연 : 동국대 철학과 21학번 코끼리 앞에서 단체 사진 찍어용! 21학번 철학과 나가는 방법은 죽음뿐

박성진 : 코끼리 분수대랑 명진관이 동대 투탑 상징물인 거 같아요.

조승우 : 코끼리 타보셨나요?

7. 중앙도서관(좌), 만해관=법학관(우)



#대학의꽃=도서관, #법학도서관, #열공

강유찬 : 내년에는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휴식도 취하는 대학 생활의 로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김아연 : 중도 공부하기 매우 좋아요 옥상 뷰가 아주 좋아요.

박성진 : 중앙 도서관에 도서 구입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비싼 책들 많이 주문하세요!!

조승우 : 중도 옥상은 자주 애용할 듯 싶습니다.

8. 다향관(좌), 혈떡고개(우)



#문구_책, #학림관_후문가는길, #옆에_체육관

강유찬 : 한번 내려가 봤다가 다시 올라오기 싫어서 빙빙 돌아서 올라온 기억만 있습니다.

김아연 : 제가 이번 학기에 댄스스포츠 수업을 듣느라 혈떡고개를 넘어 체육관으로 가거든요? 진짜 혈떡 소리가 절로 납니다~

박성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간표를 짜면, 혈떡고개를 조심하세요.

조승우 : 혈떡고개는 굴러서 내려갈 수 있을까요?

9. 철학과 사무실(좌), B158(우)



#전공강의_주로B158, #철학과사무실_welcome, #강의실에창문이....

강유찬 : B158...철학수업...코너돌면...과사...메모

김아연 : B158!! 우리 내년에는 꼭 보자!!

박성진 : 너무 오랜만에 B158을 봐서 살짝 애수에 잠겼습니다.

조승우 : 저에게는 아직 낯선 공간입니다.

10. 정보문화관과 학관(우), 학림관(좌)



#다르마칼리지, #동아리, #교육대, #후문

강유찬 : 여기는 진짜 경험이 하나도 없네요. 대면했다면 자주 왔으려나?

김아연 : 이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양 들으러 오겠지요?

박성진 : 가끔 교양 수업 들은거 빼곤, 인연이 없었네요.

조승우 : 학관은 후문 통해서 오면 금방입니다.

11. 만해광장(좌), 원흥관(우)



#대동제, #해오름제, #농구, #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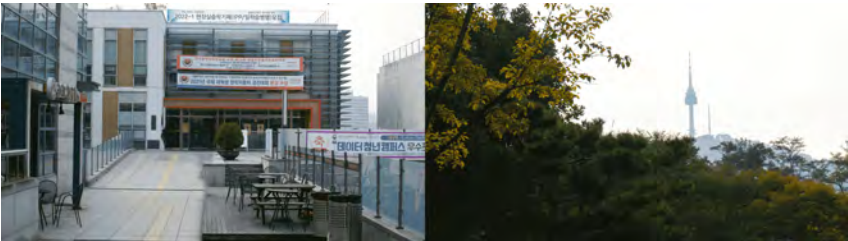
강유찬 : 실수로 잘못 올라와서 신공학관으로 안가고 걸어 올라왔을 때 원흥관을 마주치고 너무 기뻐던 기억이 나네요

김이연 : 길치라 대운동장이랑 만해광장이랑 맨날 헷갈리더라구요.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면 만해광장에서 강연했을지도?

박성진 : 만해광장에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었던거 같아요

조승우 : 축제 겪어보고 싶습니다.

12. 신공학관, 남산타워



#공대, #엘리베이터, #남산타워가보여요

강유찬 : 신공학관 엘리베이터가 없었더라면 살 엄청나게 빠졌을지도?

김이연 : 새벽 5시에 남산을 타는 맛을 아십니까? 저희 함께...

박성진 : 생각해보니, 저는 입학 후로 남산에 가본적이 없는..???

조승우 : 저는 교정을 이루는 모든 요소 중 신공 엘베가 가장 좋습니다.

기획글 : 교수님께 듣는 사랑

‘사랑’처럼 흔하디 흔한 주제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찌나 흔하고 친숙한 주제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와중에도 잘 이야기하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랑’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아주 낯선 것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친숙하고도 낯선 ‘사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디오니소스제 준비단은 교수님들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맥락에 맞춰, ‘사랑’에 관한 질문을 쓰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훈우 교수 인터뷰¹⁾

Q. 유가사상은 차애(次愛), 친친(親親)으로 대표되는 차별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동료 시민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모두 아끼고 섬길 것을 요구받고 있고, 또 그것이 현대 민주사회에 더 바람직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공자가 가르쳤다고 하는 친친의 선별적인 사랑은 이러한 가르침 또는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공자의 가르침과 현대의 사랑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A. 답변하기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가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란 말이 상당히 따뜻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이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만큼 내가 늙어서 그런가. 사랑 참 좋죠.

질문을 보면, 물론 ‘차애’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별애(別愛)’입니다. 구별할 별자 써서 ‘별애’ 그랬던 건데. 목자라는 사람이 ‘공자가 제창한 사랑은 별애’다. 뭔가 좀 구분하는, 구별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 별애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차애라고도 해석해요.

이때 ‘차애’의 ‘차’ 자가 순서입니다. 순서. ‘별애’의 ‘별’은 원래 이제 구별이라는 말과 차별할 때도 별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가 ‘차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차별이라는 말 그대로, 뭔가 차이를 심하

1) 본 인터뷰는 10월 21일에 있었던 유훈우 교수님과 진행한 ‘사랑 특강’의 내용입니다. 지면에 실린 질문 1번과 2번은 디오니소스제 준비단 마련한 질문입니다. 총 4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지면의 한계상 1번과 2번 질문만을 지면에 옮겼음을 알립니다.

게 두는 어떤 그런 차별로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 개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쓴 ‘친친’에서, 앞에 있는 ‘친’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친하게 여긴다고 할 때 사랑이고. 뒤에 있는 ‘친’은 친척, 가족 뭐 이런 얘기예요. 한자가 문장이 안 돼가지고, 품사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글자 두 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장식으로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친’은 그러니까 이제 ‘핏줄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친친 개념은 중국 역사에서 은나라 때의. 어떤 질서관입니다. 이것이 주나라가 되면 친친을 ‘존존(尊尊)’으로 바꿉니다.

친친은 쉽게 얘기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이고, 이때 ‘사랑할 만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핏줄입니다. 이게 은나라 때까지의 어떤 질서관이었습니다. 주나라로 오면, 핏줄도 핏줄이지만, 그보다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존존’으로 질서가 바뀌어요.

공자는 이 ‘친친’과 ‘존존’이라는, 은나라와 주나라 질서를 합쳐요.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한 게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어』에서 69번이나 인자를 사용하면서도 인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안 합니다. 그나마 인에 대한 정의하고 조금 가까운 게 이런 구가 있어요. “인자에인(仁者愛人)이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초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통적으로 보면요 사랑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랑의 7가지가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냈어요. 짐작해보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사랑하는 거죠. 또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사

랑’도 7가지 사랑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왜 목자라는 사람은 공자의 그 사랑을 구별하는 사랑이라고 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인의 단서는요, 맹자가 얘기했다시피 ‘측은지심(惻隱之心)’이에요. 측은지심은 요즘 말로 풀면 순수한 동정심입니다. 공자가 봤을 때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순수한 동정심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감정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인이라 겁니다.

공자는 사랑을, 설명할 단계별로 확대해 나아가며 설명합니다. 가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감각적으로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이는 사람이면 대략 공유하고 있는 정서인 ‘인지상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대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사회, 국가 나중에 전 인류까지 확대합니다. 『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죠.

목자가 이런 단계적인 사랑을 ‘별애’라고 했는데, 목자가 유가의 사랑 개념을 잘 모르고 마냥 폄훼한 건 아닙니다. 공자의 사랑법이나 목자의 사랑법은 중국 제자백가 시대,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전쟁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백가들의 공동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약육강식, 부국강병의 전쟁 상황을 끝내고 다시 통일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자가 공자를 비판했을 때는, 철학적으로, 정말로 어떤 사랑의 의미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공자처럼 그렇게 단계별로 확대 확대해 나가서 언제 천하통일을 이루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순수 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라는 사람은 별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순수 정감이나 순수 동정심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순수 동정심은 너

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 동정심에 기대 가지고 확충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대신 목자는 물질 이익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고, 이는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물질 이익만 강조를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 고전 원문을 보면, ‘겸상애 교상리(兼相愛 交相利)’ 이게 하나의 명제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루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서로 교환하라.

그렇다면 “두루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 사랑이 아니라, 목자의 겸애는 이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사랑법입니다. 목자에 따르면, 공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분명히 필요한 물질에 대한 욕구,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는 순수 동정심에 기대가지고, 그냥 애인을 주장하니 이것은 전쟁을 방지하거나, 전쟁을 끝내는 데 별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자도요, 17년을 걸쳐서 제우들을 설득하고 다녔는데, 한 사람도 공자를 안 써 줍니다. 공자를 안 사주는 이유가 ‘공자가 우월하다’는 겁니다. ‘우월하다’는 말은 좋은데,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사상이 우월하지 않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증명해 나간 사람은 맹자입니다. 맹자 때에 와서는 성선설, 사단설, 인의예지 등의 개념을 사용해서 순수한 정감에 바탕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애인’이라고 증명을 해 나간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차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뭔가 순서가 있는 사랑은 맞고, 차별이라는 말을 순서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질문에 “현대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모두 아끼고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맹자가 목자를 이렇게 비판을 하죠. 보통 일반 사람이면 내 아버지가 있고, 옆집에 아버지가 있을 때, 일반 사람이면 우선 내 아버지를 먼저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마음을 갖다가 그 옆집 아버지한테도 확대시킵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옆집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목자의 사상은 내 아버지와 옆집 아버지, 우리나라와 남의 나라,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 이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인간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냐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 공자의 사랑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다 없다는 문제를 빼고 민주주의 사회도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사람이 내 형제, 내 부모, 남의 형제, 남의 부모 이런 구분 없이 다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죠.

나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상이라고 한다면, 공자의 어떤 사랑도 최종 목표는 ‘평천하’ 모든 인류를 다 같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온 배경을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친친의 선별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기에 차별이나 선별에 대해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별이나 선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순서. 순서라고 하는 것은 확대시켜 나가는 데의 어떤 순서.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실제로 공자가 말한 ‘애인’에서의 ‘별애’니까, 여러분들 질문하고 어떤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Q. 공자는 어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어진 사람은 사랑할 이와 미워할 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간단하기만 한 일이 아닌 듯 보이고,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때 바르게 사랑하는 것 일까요?

A.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이 나에게 가장 쉽게 느껴졌고, 나머지 질문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를 만약에 공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정감의 바탕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는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는 뭔가 좀 이해 타산적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밉다고 하고 그래요. 그 기준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 계산적인 그 기준을 해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그는 누구일까요? 일반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인자가, 순수 정감이 있는데도, 진정으로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를 답하기 위해선 맹자를 끌고 와야 해요. 그러면 맹자에게 진정으로 미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맹자가 볼 때 그런 사람은 구제 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우리가 자포자기라고 하잖아요. 맹자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순수한 동정심이 있고, 그래서 성선을 주장했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그거 못해. 그건 나라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합니다. ‘애인’을 실천하라고 하니깐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핑계를 대고 자기 본성을 포기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구제해 주려고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워해야 될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구별한다’는 구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을 하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이나 설득을 포기한다. 그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질문의 첫 번째 부분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때 바르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연애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뭔가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좋아했겠죠. 근데 이때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라는 건 사실은 내 계산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 계산 때문에 좋아했다면, 그 계산대로 안 맞습니다. 왜? 그걸 내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좋아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좋아하면 되는데. 그게 보통 사람에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맹자 얘기처럼 정말 호연지기를 길러야 그게 가능합니다. 말은 쉽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기준이 자기예요. 대상을 그 자체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좋아했다가, 그 끌림이

달라지죠. 대상이 달라진 건 아닌데. 내가 사랑을 투사한 건데 그게 제 대로 투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또 미워해요 그리고 가서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죠. ‘나는 똑같은데.’

말하자면, 괜히 이렇게 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뀌.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걸 뭐 그게 고치는 게 반드시 좋을까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나는 뭐 유학이 전공이고 하지만, 공자나 맹자가 한 말예요. 나 스스로도 ‘정말로 이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자고 들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전공만 유학을 합니다. 전공으로만. 나는 그래서 늘 ‘공자주의자가 아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내 지적인 전공이 유학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막 공자를 떠받들고 ‘야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자신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랑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꼭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공자가 애인 하라고 한다면,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처럼 사랑 하면서도, 굳이 보탠다면, 자기가 하는 사랑을 한 번씩, 드물게라도 차분히 반성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연애가 됐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에 대한 거든. 공자가 그렇게 또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세 번 반성을 했다. 뭘 반성하는 거냐면, 너무 내 중심으로 뭔가 한 거 아닌가를 반성했다고 해요. 이렇게 뭐 매일 매일 세 번씩 아니더라도, 반성해보면 ‘너무 내가 내 중심으로, 아니면 또 너무 내가 이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해타산에 맞춰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니, 인
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철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드물게라도 자기 행동, 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고 냉정히 반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
랑이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중요하겠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감의,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감정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감정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기 것
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게 강
해요. 정말로 감정이라는 거는 순수한 건데, 그 순수한 것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끈대 같은 얘기를 하자면. 유학자들이 이런 인의예
지를 얘기하면서, 예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
습니다. 순수 증감을 순수 증감대로만 제대로 발휘가 되면 괜찮은데 인
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순수 정감 그대로 안 됩
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순수 정감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편벽,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그게 순수 정감이 갖고 있는, 순수한 감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죠. 그
런데 순수한 감정만 강조하고, 순수한 감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
성을 간과를 하는 순간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가면 속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슬픈 모양하고, 잔치집에 가서 자기가 아무리 고통
스럽고 좀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즐거운척 하는 거죠. 이게. “~
하는 척”을 보고, 마치 ‘체면치레’라고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순수한 정감이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해요. 그래서 최면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 한쪽으로 확 휩쓸려 나
가는 것을 방지 내지 견제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요새는 다 ‘솔직한 게 좋다’고 하죠. 좋죠. 좋긴 좋은데. 하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기서 갈등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은 감정 자체에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려면 다른 감정 이외에 다른 장치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허유선 교수 인터뷰

인터뷰어 : 강유찬, 김아연, 박성진, 조승우

허유선 : 이번 디오니소스제 주제 기획의 계기라든지, 또는 어떤 초점에 맞춰서 더 얘기를 풀어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어 : 이번 디오니소스제의 주제를 사랑이라고 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기획으로 디오니소스제 준비단끼리 ‘어떤 글을 좀 기획해 볼 수 있을까’하다가 기획의 일환으로 ‘교수님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번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철학이라는 학문의 이름 안에 이미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본 수업 중에는 뭔가 사랑에 중점을 맞춘 수업이나 어떤 학술적인 훈련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허유선 :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나한테 듣고 싶은 물음일까? 싶어서요.

인터뷰어 : 이 질문의 취지는 교수님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방법 등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질문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구요.

허유선 : 네,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필로스가 엄밀히 말하면 사랑보다 친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필로스는 가까이 곁에 계속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자 활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철학과 수업 내에서 지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탐구하고 뭐를 주제로 삼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다루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면으로 전면화되지 않아도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사랑을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다 짐작할 수 있는 대답이겠지만, 학문으로서의 철학적인 전통 안에는 확실성과 보편성, 필연성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전통 안에서 욕망이나 정서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거나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과거의 여러 철학자들의 철학을 봐도 따로 사랑 철학을 메인으로 말한 사람이 드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철학적 전통이 아무래도 지적인 이성 중심에 치우쳐 있어서 오늘날의 수업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랑 철학>이라는 강좌가 있어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런 강좌를 만든다면 조금 염두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혹은 사랑에 대해서 서툴거나, 어렵거나, 사랑으로 인해서 힘들고 상처받을 때 그런 역경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혹은 그런 것을 소화할 시간과 여유를 자신한테 주어도 될지를 다루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철학 수업이라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를 못 하겠지만, 그냥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도 결국은 좀 배우고 고민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사랑, 사랑하는 법은, 그냥 좋으니까? 약간 인간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미리 그렇게 계획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도 이렇게 이 곳에서 만날 줄 몰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중에 더 끌리거나 마음에 들고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모든 게 즐겁고 쉬워요. 처음에 막 알아가는 거니까. 처음에 함께 밥 먹으러 가고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서로 부딪히는 일도 사실 드물죠. 좀 조심스럽고 걸에만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해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정보가 엄청나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그 관계를 점차 이어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친해졌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구요.

철학 공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철학을) 메인 대화거리에서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 '네가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해라' 약간 이런 느낌 혹은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 싶으면 좀 독특한 애로 여기기도 했구요. 아니면 약간 오타쿠 같은 특이한 성향을 가진 아이? 왜냐하면 다른 얘기로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철학과에 들어와서는 수업 내외에서 교수님이랑 선배들이 너무 진지하게 그 질문을 다루고 있었어요. 또 그냥 이렇게 만난 사람들 끼리도 가만히 있다가 말을 딱 꺼내도 그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편안하고 그냥 궁금해해도 되는, 눈치 볼 필요도 없구요. 거기서부터 열게 되면 조그마한 조각 같은 얘기들도 너무 즐거워요. 사랑 얘기도 너무 즐겁고, 무언가를 그걸 못 알아들어도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계속 붙잡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이걸 업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증명들이 필요하니까 그

런 것도 어렵지만, 여전히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흥미로우니까.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하고 싶은. 그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에요. 더 많은 것을 좋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기의 마음을 중심으로 수고를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중간 중간에 느꼈던 즐거움이나 소중했던 마음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는데, 그런 건 수업할 때나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도 훌륭한 글이나 발표를 들을 때 음성으로 되살아나던 것 같아요.

인터뷰어 : 이런 말씀 들으니까 진짜 철학도 연애랑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허유선 :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내가 붙잡았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 나가려면 거기서 자기 한계도 엄청 느끼고, 자기 의심도 엄청 많이 하고, 그치만 놓을 수 없으니까. 울면서도 계속 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알겠다 싶으면 다시 모르겠고. 그런게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어 :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맨 처음에 나온 질문하고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나는 너와의 연애를 후회한다』라는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랑, 특히 연애라는 게 학술적으로 크게 다뤄지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주제로 책을 내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허유선 : 그 주제로 책을 내게 된 이유 말하는 거죠? 제일 심플하게 말

하면 출판사의 권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차라리 사랑이라면 뭐랄까- 연애를 철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으니까 철학적으로 연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의 생활에 있어서도 연애를 그렇게 잘하는 타입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출판사에서 좀 캐주얼하게, 제목에 철학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웃음) 그러면서 하게 됐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게 동국대 교양 강의였어요. 지금은 그 강의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철학과 현대인의 삶>이라고, 동서양의 클래식한 철학들을 오늘날의 시야와 연결해서 소개를 해주는 수업이었어요. 교양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옛날 책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와닿는가’를 생각을 하다가 프로세스를 짰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 너,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이렇게 네 단계로 해서요. ‘나’를 다룰 땐 그와 관련해서 흄과 데카르트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 ‘너’와 관련해서는 라이프니츠나 하이데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다룰 땐 공동체 윤리를 다루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고민이랑 연결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강의안을 많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돼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어 : 혹시 책의 내용에 경험담도 담겨있을까요?

허유선 : 아니요. 제 얘기는 아니고 타인들의 얘기에서 가공해서 담았어요. 이야기를 다 해체하고 섞어서 좀 더 일반화되고 공감 가능한 형식으로 글을 썼어요.

인터뷰어 : 그렇군요. 책을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언젠가 시간 내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음)

그럼 다음 질문은 앞선 질문들에서 좀 많이 답이 된 것 있긴 한데요 저서의 서문 내용 중에서 인용을 해서 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절절하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생각하게 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 괴로운 날인 것 같다. 우리가 연애와 사랑 때문에 삼질하는 시간은 누구나 철학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문장을 쓰시면서 철학하는 것과 연애 혹은 사랑하는 것에 연관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랑함’과 ‘철학함’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허유선 :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인터뷰어 :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답해볼까요?

인터뷰어 1 : 제 생각에는 사랑과 철학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철학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사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이나 연애 또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뷰어 2 : 저는 일단 철학함과 사랑함은 둘 다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성찰을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어 3 : 저는 철학에서 자신과 맞는 철학자와 사상을 찾는 부분과 사랑을 할 때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부분이 닮아 있다고 생

각했습니다.

인터뷰어 4 :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철학이 연관되는 점은 둘 다 어려웠다고 할까? ‘다 어렵다’ 이 정도가 진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철학은 확실히 저한테는 약간 이론적으로 남아있고, 이제 사랑은 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차이점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약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유선 : 사랑할 때 남만 위하나요? (웃음) 남만 위하면 연애가 힘들어져요.

이건 ‘철학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철학한다’는 것의 기본 혹은 핵심은 ‘주장, 결론’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질문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탐구가 시작되고 생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혹은 ‘언제 질문이 생기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가 깨지지 않을 때는 질문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편안한 상태면 그 상태에안주하게 되지 굳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갑자기 졸업생이 되고,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 걱정을 하고, 또는 대학생이 된 상태를 생각해봐요. 이럴 때는 이제 익숙한 것들이 변화하면서 자신 새롭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철학이 ‘놀라움’, ‘경의로움’, 즉 감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해요. 감탄이라 함은 ‘이게 뭐지? 왜 이런 기분이 나한테 이렇게 느껴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새삼스럽게 더 깊이 바라보게 될 때.

근데 제가 제 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을 때. 새삼스럽게 걸리는게 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

으로, 반사적으로 지나쳐 갔던 것이 더 이상 지나칠 수 없게, 다시 돌아 보게 만들 때. 그때 질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 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애 관계에서 연애가 잘 풀릴 때는 크게 고민하거나 심각하지 않아요.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어디 갈까’와 같은 얘기나 하죠. 그런데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관계는 도대체 뭐지?’ ‘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생각하는 연애관이나 사람관이 뭔가 잘못됐나?’, ‘나의 성향부터 뜯어고쳐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 관계나 사랑이라는 점에서 진지한 질문이 생기고, 진지한 질문이 생겨서 그때부터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그런 게 철학과의 연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연애나 철학만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항상 철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잘 펼쳐 나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철학을 배우는 거죠.

인터뷰어 :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질문은 살짝 좀 더 캐주얼한 질문인데, 이게 저희 학부 학술제를 위한 인터뷰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혹시 동국대 철학과에 대해서 사랑이나 애정을 느끼신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허유선 :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저는 학부 때부터 동국대 철학과에 있었어요. 근데 학과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과가 서로 티치를 안 하고 각자 살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있죠. 요새는 근데 우리 과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서 특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치만 서로 터치를 많이 안 하고 최대한속으로는 뭐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걸으로는 각자 좀 말하는 거를 존중하거나 이렇게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또 그런 태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위기나 이런 문화에서 좋은 것을 얻어가고,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 수호를 받으면서 조금씩 사회 속에 어른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주로 반응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철학과라고 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예상치 못했던 너그러운 관용과 친절을 받기도하고 내가 준 것도 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다시 주기도 하면서요. 아무튼 성장을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은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 철학과 공동체는 다른 철학과 친구들도 제가 느낀 것을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어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유선 : 그거 되게 형식적인 멘트네요. (웃음)

인터뷰어 : 마지막 질문은 이번 인터뷰 기획의 공통 질문인데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허유선 : 무슨 이런 엄청난 질문을...

사랑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나 자신도 상대방도 더 삶의 힘을 북돋는 것. 생명력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보고 또 좋아하고. 그런 거라고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람은 각자 서로 다른 세계가 있어요. 각자의 세계가 있는데 각자의 세계가 하나의 풍경 안에 담기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취약하고, 수고로운 활동이자 관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청 스틸 넘치는 거죠.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풀어나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어려운 상황일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인간의 취약성에서 시작해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해 주는 끈 같은 것. 물론 사랑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좋은 것들 중간 사이사이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너무 약한 마음과 삶이 계속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의 사랑은 꼭 연애만이 아니라 나의 철학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구요.

인터뷰어 :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유선 선생님 :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장운혁 교수 인터뷰

인터뷰어 : 강유찬, 김아연, 박성진, 조승우

인터뷰어 : 최근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념으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화 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사회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장운혁 :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어떤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한번 이 구별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를 조금 이야기해 주면서 '개인적인 사랑이 사회적인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말이 다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을 중시하는 것. 이기주의는 이기, 즉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주의의. 개인과 이기주의. 자기는 엄연히 다르죠. 개인은 집단이나 어떤 단체와 반대되는. 그냥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기주의가 말하는 자기는 타인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인주의는 집단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유 권리 이런 것을 조금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거나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에 반대말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가 됩니다. 공동체주의는 또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홍윤기 선생님이나 아

니면 내가 나중에 수업할 정치 철학 시간 수업 때 한번 구별 해봅시다.

이기주의는, 반대로 남이야 어쨌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신념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의 반대는 또 이타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한 공동체 안에 개인들의 최대한의 자유를 말한다면, 이기주의는 한 공동체에서 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자유 이익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따라서 평등주의를 또 함축해요.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해악의 원칙을,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의 자유는 동등하다’라는 이익 평등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자유를 동등히 간주하면서도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것이 이제 개인주의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집단주의나 과거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전체주의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우리가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기주의하고 혼동을 해서 개인주의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으로 쓰여요.

사실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제 다수결에 의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패배하는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 이들도 그래서 우리와 동등한 어떤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사실 내가 그 약자가 될 줄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승자가 있다면 패자가 있고, 또 패자가 없다면 또 승자도 없어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것보다 그저 그냥 내가 운이 좋

아서, 내가 처음부터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냥 승리자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패자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곧 승자가 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걸로 굳이 얘기 안 해도 일상적인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꺼 같아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정성호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성호 선생님 집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데,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 보면, 미국 사람들은 건물을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문을 다 잡아줘요.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남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가 전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 개인주의라면, 언젠간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똑같은 만큼 내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들의 이익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사랑이 공동체 사회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나 자유 이걸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주의대로만 살아도, 굳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개인에 대한 사랑 이익과 전체에 대한 사랑과 이익이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에 나도 개인이면 너도 개인이라는 것을, 내가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어 : 네 타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중요하겠네요

장운혁 : 그렇죠.

인터뷰어 : 네, 다음 질문은 롤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영미윤리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셨는데요. 롤스와 같은 윤리학자의 사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운혁 : 아무래도 롤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롤즈만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롤즈는 윤리학자라고 분류되기보다는 좀 정치철학자로 많이 분류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롤즈가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닌데요. 롤즈가 생각하는 윤리는 그냥 개인들의 자유로운 합의예요.

공정한 상태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이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만 된다면 그게 도덕이에요. 말하자면 도덕은 당시 사람들이 합의하는 내용에 불가한 거예요. 롤즈에게 중요한 점은, ‘그 합의가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이죠.

그래서 롤즈는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토대 위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공리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그렇다고 칸트처럼 어떤 이성에 의한 판단, 의무, 실천 이성이라고 하죠, 합리적 이성은 배제한 채 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니까. 롤즈에 따르면 합리적 존재는 내가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아는 존재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롤즈에 따르면 그런 인간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그게 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사랑이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정의론』, 롤즈가 쓴 유명한 책, 『정의론』에서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이야기를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정의론』이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부 ‘정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책에 73절 7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진짜 한 문장 정도로만 언급이 됩니다.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정의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감정입니다. 가령 맹자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수오지신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걸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롤즈는 도덕적 태도를, 자연적 태도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정의감 발달로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덕적 감정을 갖지 못했을 경우,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적 태도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도덕적 감정을 경험했을 때 존재하는 자연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적 태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태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으로부터 부여 받던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도덕적 감정을 가졌을 때 보이는 자연적인 태도 갖지 않았을 때 보이는 자연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나요?

인터뷰어 :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장운혁 : 그럼요.

인터뷰어 : 그 도덕적 감정은 선験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장운혁 :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롤즈가 선験적으로 있다고 생각한 건 합리적 계산 능력, 합리성인 것 같아요. 아까 정의감 발달이라고

했으니까, 도덕적 관념은 서서히 발달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보이는 자연적 태도와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보이는 자연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도덕적 감정하고 자연적 태도는 서로 겹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감정이 없다는 것은 특정한 자연적 유대가 없다는 확증입니다. 반대로 이제 어떤 자연적 애착이 존재하게 되면, 일단 필요한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것은 일정한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가지면 타인이 있음을 즐거워하고, 그의 고통에 슬픔을 느끼는 성향이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도덕적 감정이 있으면 타인에게, 어떤 도덕적 상황에서, 공감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도덕적 감정이 없으면 그냥 싸이코패스처럼 아무런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롤즈의 책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정의의 의무에 따라 행위한 적이 없는자들 간에는, 우호와 상호 신뢰의 유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착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행동을 하는데 다른 이 유들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가 『정의론』에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기만이 없는 한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공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이 바로 도덕의 기초가 되는 거고, 그 감정에 따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도덕적 감정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그래서 박애입니다. 다른 말로는 롤즈는 인류애,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넉넉히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란 겸손에서 비롯된다. 지금 나의 기쁨이, 지금

나의 행복이, 지금 나의 편안함이, 나의 잘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 개인적 능력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정말 우연으로 선택된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 만일 내가 남보다 조금은 더 여유롭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나의 그 여유와 편안함을 정말 우연의 이유로 조금은 덜 여유 있고 조금은 덜 편안한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넉넉한 사랑이며,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박애이고 인류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최소한의 사랑이다. 사랑은 정의의 또 완성이다.”

인터뷰어 : 여기서도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강조되네요.

장운혁 : 배려심이 왜 생기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고, 이것은 그에 대한 태도로서 자연히 드러난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도덕적 감정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 없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터뷰어 : 윤리학 수업에서는 '당신이 열차의 기관장인데 선로의 한쪽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범죄자 그룹이 묶여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사용되곤 합니다. 위 질문은 '차등적 사랑'을 극단적 상황에 설정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킵니다. 이런 질문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는 성공하지만, 논의를 더 이끌어내가지 못하고 곧잘 끝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딜레마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선생님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장운혁 : 사실 답을 내릴 수도 없고요. 내려서도 안 되는 게 인간 사이 일이지. 근데 이제 굳이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딜레마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런 트롤리 딜레마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없죠. 아마 한 번도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사고 실험이니까.

트롤리 딜레마는 곧 인간이 가진 도덕적 직관으로 어떤 윤리적 원칙을 도출해 내려는 실험이에요. 실제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사고 속에서만 실험을 하는 거죠. 이 트롤리 딜레마하고 유사한 상황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다 봤어요.

인터뷰어 : 어떤 면에서 둘이 비슷한 걸까요?

장운혁 : ‘오징어 게임’도 실제 일어날 수 없는 드라마잖아요. 오징어 게임 상황 자체를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트롤리 딜레마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사고 실험의 결과로 누군가를 비난해서도 안 돼요. 트롤리 딜레마에서 “너는 왜 다섯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죽였냐, 한 명이 무슨 죄냐” 이럴 수 없는 거죠.

그 사고 실험의 결과 누군가를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저, 사고 실험은 이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도덕 이론이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고 실험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다른 범죄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요?

인터뷰어 1 : 제가 1학년 때 윤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딜레마 질문을 똑같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이러한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한 명을 죽이면 5명을 살리고, 5명을 죽이면 한 명을 살리는 상황에서 이미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장운혁 :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고 실험이 설정하는 특정한 상황 주목해야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적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의 사회도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우리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거나,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 반대되는 상황, 우리의 도덕성을 깎아 먹는다든지, 사회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뷰어 : 아예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장운혁 : 저는 사고 실험이 주는 교훈, 특히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이 주는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사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저는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 혹은 사회적 같은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어 : 네 다음 질문은, 학부 학술제를 위한 인터뷰다 보니까, 동국대 철학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느끼시는 ‘동국대 철학과에 대한 사랑 혹은 애정’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운혁 :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철학과에 대한 사랑, 애정을 말해라... 행동으로 보여보라는 말보다 쉽기는 한데 말하기 어렵네요. 이게 사랑이나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 이었는데. 저는 철학과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학부를 경주 캠퍼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차별도 받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선후배들도 계시고.

사실 제 지금의 인간관계가 다 동국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중고등학교 친구들 빼고 대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 서울 안의 인연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대학원을 통해서 만난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선후배들하고 연구하고 만나면서, 흔히 말하는 지혜 덕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적으로 주고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직업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게끔 해주었죠. 석사 과정 중 어려

웠을 때, 논술이라는 것이 그때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지금도 논술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만큼 아니었어요. 논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철학과였어요.

우리 철학과에서 배워가지고 사교육에서도 1.5타 강사도 찍어보고 돈도 그때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이제 유학도 가고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계속 강사 생활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가서도 강의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내 차례가 왔다. 사실, 내 차례는 진작에 온 것 같은데요. 더 연구하고, 좋은 연구가 있으면 우리 연구소에 논문 투고도 많이 하고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학부생들을 많이 못 만나지만, 아마 내년부터 만나게 되면 학부생들과 같이 세미나도 해보고, 무엇인가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요.

철학과에 대한 사랑 애정을 말해라고 질문 했잖아요. 철학과에 대한 저의 애정을 표현하기 가장 적절할 것 같은 말이 ‘집’인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힘들면 쉬기도 하고. 나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주는 부모님, 선생님들이 있고요. 또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아이가 우리 집에는 있고 여기는 학부생들과 동료들이 있고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고 우리 철학과에는 역시 선생님들도 있고 학부생들도 있고.

누구보다 이제 사랑 그 자체인 철학이 있는 것. 집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국대 철학과, 그게 집이고. 우리 집은 내 집은 동국대 철학과다. 가족들 간의 사랑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가족들 간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저에게 동국대 철학과는 ‘집’인거 같아요.

인터뷰어 : 이번 인터뷰 기획의 공통 질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운혁 :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한 플라톤 『향연』의 내용을 토대로 답할게요. 플라톤에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동기, 그게 사랑이에요.

더 나은 삶이 뭘까요? 좋은 차를 타고, 더 크고 비싼 집도 가지고, 이쁘고 멋있는 연인, 나를 금수저로 만들 수 있는 부모님 등등이 나를 더 나은 삶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거겠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역으로만 하면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즉 갖지 못한 것을 소회하고 싶은 욕망, 그중에서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결여해서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죠.

소크라테스는 또, 보기에 중요한 건 좋은 것과 좋음 그 자체 구별합니다. 좋은 것 자체는, 물질적인 거나, 어떤 부분적인 것, 가변적인 것, 아이디어가 아닌 것이면 안 돼요. 그것들은 언젠가 곧 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좋은 것들은 사라지고 변해요. 오히려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좋게끔 해주는 그 무엇, 본질로서의 좋음 그 자체를 추

구해야 된다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 합니다. 그럼 좋음 자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다행히도 좋음 자체에 다 가설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이제 『향연』에서는 전수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출산이죠. 정신적인 출산이란 쉽게 말해서 세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담론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이성 활동의 결과물 곧 진선미예요. 가치 이것들이 확장되면 문화, 학문, 제도, 법, 예술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문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을 계속 하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플라토닉 러브, 이 말의 기원도 정신적 출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의 원래 의미는 육체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정신적인 사랑으로 이어가서, 지금까지 말한 이성적 활동에 대한 결과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예요.

처음에 제가 사랑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이성 능력의 결과물을 사랑해서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물질이나 육체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럼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마음의 눈, 이성의 눈 밖에 없죠. 나의 본질로서 상대방의 본질을 보는 거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진리를 알고 더 선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인거 같아요.

인터뷰어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장운혁 : 많아요. 내가 학생들 작년하고 올해 못 봐서 누가 누군지도 모

르겠고 당연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불만을 100% 200% 이해합니다. 빨리, 방법은 뭐 이 상황이 종식되는 것 밖에 없겠죠. 학교에서 만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그 동안 못했던 거 다 합시다 술도 마시고 세미나도 밤새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나도 앞장서서 할 일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게 내가 우리 집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인터뷰어 :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선 교수 인터뷰

인터뷰어 : 강유찬, 김아연, 박성진, 조승우

인터뷰어 :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사랑의 조건으로 정서적 교류가 가능할 것, 또는 열린 마음을 가질 것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진선 : 이게 사실 처음 질문을 받고 아까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사랑의 조건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의 형태가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나 혼자 느끼는 걸 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상호 간에 뭔가 교류가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상태가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혼자서 일방적으로 어떤 대상을 두고서 내가 느끼는 형태, 이게 이제 사랑일 수도 있고.

먼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조건은 확실히 공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로 말을 한다고 치면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실제로 공감을 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좋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공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사랑을 하는 필요조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혼자 너가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게 사랑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죠. 나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나는 애가 좋아.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상대는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해?” 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사랑이 성립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상대를 두고 상대와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전제했을 때, 사랑이 있다면 물론 일방적인 것도 얘기를 듣고 공감을 활용하는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사랑의 필요조건 정도 완전한 사람을 완성시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뷰어 : 다음 질문은 앞에 말한 질문하고 살짝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위에서 말씀하신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은 로봇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아직 발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할까요?

김진선 :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요. 인간이 로봇과 사랑을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로봇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느냐와 진짜 이것이 어떤 작용/반작용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상태가 사랑일까라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는 해요.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은 만들어지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니까, 애당초에 프로그램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는 등의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하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만들어진 거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것이 로봇적인 사랑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로봇 입장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도 로봇을 좋아하고 호감을 표현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랑한다고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진짜 문제인 부분은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가 로봇이었을 때 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로봇에게 좀 무리한 요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맨날 “한 시간에 한 번씩 나한테 연락을 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인간이라고 하면, “네가 똘똘.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조절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로봇의 문제는 우리가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로봇에게 시켰을 때, 로봇이 나에게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싫어”라고 하면 그런 로봇을 누가 사겠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 로봇을 사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소위 말하는 비인간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나는 조절할 만한 여지를 갖질 수 있지만, 로봇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인간적인 행위 같은 것을 쉽게 당할 수 있죠.

이런 것은 그 사람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 이성을 유지할 했을 때에만, 로봇과 인간 간의 사랑다운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해봤습니다.

인터뷰어 : 교수님께서서는 프로그래밍 된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로봇에게는,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것도 프로그램 됐을 거고, 슬픔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이 됐을 텐데요. 교수님께서서는 로봇이 그 감정들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김진선 : 로봇이 지닐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감정을 지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쁨,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슬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개념을 스스로는 이제 인지를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을 감정을 지닌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뷰어 : 선생님께서 ‘행복하게 인문학적 문제들’ 그리고 ‘로봇의 행복, 인간의 행복’의 교양 수업 강의를 하시는데요. 수업 중에서 혹시 학생의 의견이나 주장 가운데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김진선 : 질문이 다 어려웠는데. 이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학생들의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생각했다가 은연중에 내비치게 되면 그게 편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절대평가니까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상대 평가 같은 경우는 이 편향이 자칫 잘못하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봐,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어 : 다음 질문은 저희 이번 인터뷰 기획의 공통 질문인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진선 : 이 질문이 진짜 몇날며칠을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랑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인도 있고 부모 자식 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동서고금의 진리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황금률로 제시가 되고, 공자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불교 자비도 이 얘기고. 어차피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내가 맞아서 아픈 것처럼 재도 아프니까, 니가 싫은 건 재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자기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신에 빚대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것 붙여져야 하는 조건은 ‘합리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대의 상황을 내가 추정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어 :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공감이나 동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김진선 : 타인에 대한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추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추론을 합리성이라고 지칭을 하면, 보통 사랑을 느낀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느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어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획글 :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시간과 지면상의 한계로, 모든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디오니소스제 준비단은 각자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들께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해 묻고 답변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박민미 교수의 답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1997년 개봉작이다. 청불등급의 로맨스/멜로물인데 60대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랑 이야기이다. 독일어 원제는 ‘Angst Essen Seele Auf’로서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알리의 어눌한 독일어 실력을 문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문장으로 표현한 제목이다. 영화는 사랑, 혐오, 외로움, 차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파시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쓰면서 이 영화가 떠오른 이유는 ‘aufessen’이라는 어휘 때문이다. ‘잠식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aufessen’은 ‘다 먹어치우다’라는 뜻이다. ‘먹어치우다’는 이 글을 이끄는 핵심어이다.

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인가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었다. 사랑을 고정된 것으로 정체화하자는 의도의 물음일 텐데, 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알지 못한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품어보지도 않았다. 이 세상에 그러한 질문이 있고 무수한 대답의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답들을 들여다본 적이 있을 따름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사랑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랑인가?’라는 질문은 했었다. ‘내 가슴에 지금 이는 이 감정, 이것이 사랑인가?’

그리고 사랑과 관련해서 실로 적극적으로 늘 했던 질문은 ‘사랑이 어떨하면 좋겠는가?’였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다. 이들에 대한 내 감정을 사랑이라

고 이름 짓는다면, 이 감정을 이들에 대해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랑 앞에서 늘 불안했다. 이 감정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까지 권할 것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금지할 것인가. 내 안에서 나왔지만 나를 부정하며-모태로부터 나왔으나 모태를 부정하며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할 이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나의 작용은 이들의 삶을 상당부분 결정하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이들의 자유를, 자유라는 말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조형할 것인가. 실로 매순간 두려웠다. 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처럼 갈등으로 채워진 심정이 이들에 대한 사랑 앞에서 함께 했다.

이제 두 아들은 성년이 되어 내 품을 떠났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돌이켜본다. 사랑은 대상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상을 늘 품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만, 대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대상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만, 대상을 먹어치워서도 내가 대상에게 먹힘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은 늘 변화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감정이 대상에 대해 일었을 때 사랑은 과거의 대상에 대한 고착도 없이, 미래의 대상에 대한 예견도 없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면 좋겠다. 사랑이 변했다고 질책할 것도 없고 사랑이 변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현재에, 지금 이 순간 그의 모습이 기쁜, 그런 것이면 좋겠다. 대상과 함께 하는 그 모든 겪음이 그와 나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이 서로 기쁜, 그런 것이면 좋겠다.

심지원 교수의 답변

사랑이란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켈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지금 하고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민해보았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 '달콤한 거짓말', '가스라이팅 하거나 당하기 가장 쉬운 수단', '어떤 사람과 사랑을 했는가하는 기존 경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존경, 신뢰, 애정이 함께 하는 것', 유치하지만,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니까 가장 좋은 화장품? 미용술?',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인지약물?', '독립된 사람과 독립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았는데, 답변이 변변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찬씨 덕에 사랑에 대해서 별로 고민안하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네요. 고마워요.

김영진 교수의 답변

사랑에 관한 한마디

사랑은, 굳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혹은 세간적인 것이든 세간을 초월한 것이든, 그 무엇을 그냥 그 자체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의 씨앗이자 그로부터 일어나는 행동인 바, 그러한 마음과 행동으로부터 또 다른 많은 선과 악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낳아지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우리 삶의 관건일 것입니다.

기획글 : 학부생 인터뷰

학교 비대면 2년차. 오히려 집 밖에 나가, 학교를 가는 것이 더욱 어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하게 진했던 학우들과도 어쩔 수 없이 전보다 적게 만나고, 낯선 철학과 학우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본 인터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학우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사랑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눠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유준상, 최홍석 학우 인터뷰

인터뷰어 : 강유찬, 박성진, 조승우

인터뷰어 : 학부생 인터뷰는 가볍게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 한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유준상 : 제가 학교 근처에 자취하고 있는데요. 동기들도 다 군대 가고, 그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집 안에 박혀 있습니다.

최홍석 :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작년까지는 집에서 저도 그냥 많이 쉬고, 즐겁게 보냈어요. 한 일 년 정도는. 이제는 사학년 되고 하니까 졸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서 좀 유용한 점이 좀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도 많이 좀 줄이고, 혼자 공부할 시간도 준상 씨처럼 갖고 저도 그래서 요새는 자기 개발 같은 거 많이 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인터뷰어 :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뭔가 약간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좀 적응을 했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있을 것 같네요?

인터뷰어 : 적응이 됐는데... 된 거 같네요. (웃음)

최홍석 :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좋은 점이 좀 찾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되게 안타깝고 좀 놓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좋은 점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어 1 :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은 대학교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이제 장단점 비교하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이걸 좋다 하시는 점이 있나요.

최홍석 : 안 씻고 들어도 되고요. 네. (웃음)

유준상 : 학원 같은 것도 인터넷 강의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약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도 같고. 뭔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최홍석 : 저는 비대면으로 들었을 때, 대면에 비해 좋은 점이, 녹화 강의 같은 거 해주시면은 한 번씩 되돌려보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녹화 강의를 듣고 복습하면, 오히려 대면 수업보다 퀄리티가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이 집중력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좀 비대면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어 1 : 공부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 게. 저도 약간 수업 틀어놓고 딴 짓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웃음)

인터뷰어 2 : 저도 너무 많아서.

유준상 : 혼자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기는 많은 거 같아요.

인터뷰어 1 : 응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유준상 : 하지만 녹화가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최홍석 : 좀 안 좋은 점은. 토론하거나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제한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말을 하려면 이렇게 얼굴도 보고 약간 좀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조금 답답할 때가 많긴 하더라고요. 경영 수업 같은 걸 들을 때 토론이 많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뷰어 2 : 아무래도 딜레이 같은 것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최홍석 : 캠을 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좀 끄고 있으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인터뷰어 1 : 대학 생활이라는 게 사실 수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수업이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카페도 가고 약간 이런 인간적인 교류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어찌면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저는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인터뷰어 : 다들 철학에서 어느 쪽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니체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동서양 중에서 이제 동양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동양 중에서도 노장이 좋다 이럴 수 있잖아요.

유준상 : 언어철학 쪽에 약간 관심이 있는데. 수학과를 복전 하고 있거든요. 1학년 수업을 듣고 있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쉽지는 않아서.

인터뷰어 2 : 언어철학 논리철학. 이런 쪽인가요

유준상 : 네. 공부를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웃음)

최홍석 :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철학과로 전과를 하게 됐을 때 관심 있었던 분야가 정치 철학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형이상학적인 거나 그런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좀더 실용적이고, 좀 현실적인 분야가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정치 철학이나, 사회 문제 같은 거 다룰 때 기술 철학,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할 때가 돼서 더욱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인터뷰어 : 전과 얘기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이중에서 전과로 철학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철학과로 전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홍석 : 그전에는 되게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군대 가서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철학책도 읽게 됐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부가 뭘까 했을 때 그게 철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자꾸 유바라리가 미래에 있는 철학이 뜬다고, 철학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어 1 : 철학 코인!

인터뷰어 2 : 아직 뜨지 않은...

인터뷰어 : 본 인터뷰가 디오니소스제 기념 인터뷰니까, 디오니소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오니소스제에 대해서 뭔가 갖고 있는 기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유준상 : 제가 1학년 때, 디제 기획단에 참여를 다 했었어요. 그때 기획

단장이 기동 선배였는데. 저희 기동 선배 혼자 일을 다 하셨거든요. 디제에 글을 써서 내거나 한건 아니지만, 그때가 기억에 남네요.

인터뷰어 1 :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최홍석 : 저는 아직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봤어요. 제가 3학년 2학기 될 때 철학과 왔었는데, 그때 철학과 단톡방에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 경험해 봐요. 사실 이런 걸. 철학과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학문적이고, 철학에 되게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학술제나 같은 것도, 딱 데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어 1 :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같네요.

인터뷰어 : 이제, 이번 디오니소스제 주제인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유준상 : 제가 요즘은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웃음) 어떤 분께서 디제 글을 써달라고, 빈말로 던지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랑을 안 하고 있어서 못 쓰겠다고 농담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최홍석 : 어... 주변에 이제 공대나 이과 애들이랑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되게 유전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전자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호르몬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인터뷰어 2 : 너무 딱딱하네요.

최홍석 : 근데 이게 좀 명확한, 진화론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 사랑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삶을 사는 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접하면서 사는데. 음... 아, 잘 모르겠네요. (웃음).

삶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인터뷰어 :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학과의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최홍석 : 저는 지금인거 같아요. 학우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뷰어 1 : 아, 영광입니다.

유준상 : 저는 1학년 때밖에 학교를 안 다녔었으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대면이고. 확실히 대학에서 어느 학과든 1학년 때가 가장 재미있는 거 같아요. 놀고 그럴 때가 보통 그때잖아요. 부모한테는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웃음). 어쨌든 그래서, 1학년 때 기억으로 그냥,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다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인터뷰어 : 이제 질문은 마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유준상 :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를 신청한 이유가, 하도 그냥 집 안에 있고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만날 껌덕지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에 신청했어요.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잘 신청한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분(20, 21학번)한테는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학교생활을 제대로 잘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터뷰어 2 : 이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인터뷰어 3 : 요새는 그래도, 다른 학우들에 비하면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학번 중에 2년 동안 학교를 못 갔다고, 면접 볼 때 제외하고는. 뭐 그런 소문까지 들리니까요.

최홍석 : 저도 되게 거의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철학과분들과 얘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또 다들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다들 파이팅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어 :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호, 이윤지, 차정환 학우 인터뷰

인터뷰어 : 김아연, 박성진

인터뷰어 :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황을 알려주세요.

이윤지 : 저는 1학기 때에는 약간 조금 우울하게, 글루미하게 지냈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좀 새로운 목표 같은 것도 세우면서 공부도 즐겁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인터뷰어 : 새로운 목표라 하면 어떤 걸까요

이윤지 : 유학 쪽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좀 포괄적으로 윤리학 전체를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차정환 : 저는 1학기부터 꾸준히 개처럼 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개처럼 살고 있다는 게.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싸고 아무 계획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이윤지 : 행복하면 그만이죠.

김준호 : 저는 수업은 솔직히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웃음). 이번에도 자체 드랍을 하나 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 자체 드랍은 어찌다가 하시게 됐나요?

김준호 : 제가 수업을 듣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시험

과제를 딱 냈는데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서. 교수님께 항의 메일 넣는데, 너 잘못이다 그러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업 안 들었습니다.

인터뷰어 : 아... 그렇군요. 무슨 수업이었나요?

김준호 : ‘경제학 개론’이라고... 저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때 경제를 공부하기도 했었고. 어제 수업이었는데 그냥 제쳤어요.

차정환 : 저도 두 개나 제쳤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인터뷰어 : 저번 학부생 인터뷰에서는 어찌다가 철학과에 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살짝 터부시되는 거긴한데.

차정환 : 아 그런가요? 왜 그렇죠?

인터뷰어 : 그러게요. 약간 물어보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철학과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어 1 : 저는 멋있어서 왔습니다. 멋있잖아요. 동양철학에 또 빠져가지고

차정환 : 멋있다고 온 것 자체가 멋있다.

이윤지 : 중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게 철학 쪽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책 같은 거. 저는 그게 『장자』였거든요. 솔직히 아연 님이 동양 철학에 관심 있다고

했을 때 저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을 별로 못 봤거든요. 대부분 서양철학하려고, 철학에 뜻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거의 한 6년 동안? 중학교 3학년, 고등 3학년 내내 철학과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공부는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안 되겠다. 난 대학 가려면 철학과 밖에 없다. 다른 데는 마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파서 동국대 바라보고 왔습니다.

차정환 : 대학원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윤지 : 네. 가더라도, 대학원에서 진짜 제가 자질이 있다 하면은 박사 과정도 한번 따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인터뷰어 2 : 진짜 멋있네요.

이윤지 : 왜냐하면 사실 제가 돈 벌거나 그러는데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차정환 : 저도 마찬가지로인데. 여기 돈 벌려고 온 사람 없잖아.

인터뷰어 2 : 저도 철학과는 고1인가, 고2때부터 오고 싶었는데. 전에 EBS에서 이진우 교수가 니체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특강 보고 '와. 뭔가 뭐 철학 하면 저런 거 배우나 보구나'하는 생각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운 윤사도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거 배우면서 되게 사상 배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뭔가 또 고등학교 때 되게 시키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까지 와서 남이 시키는 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윤지 :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차정환 : 일단 악수 한 번 하시죠. 저도 니체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인터뷰어 2 : 정말요?! (악수).

차정환 : 저는 제가 철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열여덟 살 때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니체라는 사람의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나도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남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좀 덜 힘들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김준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가 싫어져가지고 공부 아예 놔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여자친구가, 공부 좀 해라 왜 안 하나, 그래 가지고 말을 또 잘 들어서 또 (웃음)

인터뷰어 2 : 참된 사랑이었네요. 서로를 이끌어주는.

김준호 : 생활과 윤리책을 딱 던져주더라구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인터뷰어 1 : 아 진짜. 사랑의 위대함.

인터뷰어 2 : 저희 또 이번 주제가 사랑이라.

김준호 :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웃음) 여자친구가 약간 만

들어주지 않았나.

인터뷰어 : 혹시 동국대 철학과 입학 전에 디오니소스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 게 있었나요?

차정환 : 저는 몰랐어요.

김준호 :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윤지 : 저는 학종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봤어요. 동국대학교 전용으로만 나왔던 책자가 있었거든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철학과 가고 싶다 하면서 봤었는데.

그때 디오니소스 제라는 학술제가 있다는 걸 보고 ‘와 대박 신기하네.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쩨다. 가고 싶다.’ 그런 정도였어요.

인터뷰어 2 : 이게 학종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면, 아는 정도이고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건가 보네요.

인터뷰어 : 이번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보고 있는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인터뷰어 1 : 예시를 들면. 저는 사랑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에서 사랑이 똑같은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든 누구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조금이라도 큰거 같아요. 완전하게 균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사랑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정환 : 나는 약간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숫타니파타』라는 불교 경전에서 본 내용이 ‘사랑을 하면 집착이 올 수밖에 없다. 집착은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음... 또 약간 생각이 좀 정리되면 말할게요.

인터뷰어 2 : 저는... 보통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미워하면 멀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미워하는데도 떨어질 수 없는 감정’이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이윤지 : 저도 얘기하면 되나. 저는 사랑이 약간 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처럼 누군가를 위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게 솔직히 인간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개인 간에서도 그렇고, 개인이 집단을 향하거나, 국가 간에서, 이런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꿈같은,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진짜 꿈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어 2 : 보통 뭐 꿈이라고 하면 약간 뭐 허구적이거나 약간 미신적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이윤지 : 약간 목표는 높게 잡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게 제일 이상적일수록,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이만큼은 왔어 있을 때 더 높고 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준호 : 저는 아직 사랑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사랑은 되게 되게 추상

적인 거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고, 애인한테만 한정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동기나 가족, 친구에 대한 사랑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릴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터뷰어 1 : (정환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됐나요?

차정환 : 음... 경험적으로는 사랑이 뭔가 공통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어 : 그렇군요.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어 1 : 지혜와 자비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마지막 멘트 딱 시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주제가 자본주의와 욕심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욕심 없는 삶을 삽시다 이라고 끝냈던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할게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하는 인생 사세요.

이윤지 : 그럼 저도 희망적인 얘기 할까요. 솔직히 요즘 세상 많이 각박해 보이잖아요. 힘든 것도 많고, 지금 어디에서는 내전이나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많이 힘들고 좀 이기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환경 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개인을 향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랑,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살아가고, 인류가 살아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좀 더 살아갈 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어 2 : 저도 사랑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웃음).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이런 기회 통해서 서로 얼굴 뵙고 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환 :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랑은 자신의 삶을 먼저 사랑을 한 다음에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 : 저는 아까 제가 사랑은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각 개개인의 정의가 내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 불교적인 사랑, 자비가 아마 가장 통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어 :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부생 논문과 논평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난 사랑의 다중적 의미 - 박성진
(본교 철학과 4학년)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다중적 의미

박성진

목차

1. 서론
 2. 본론
 - 2.1. 데카르트 정념론에 대한 스피노자의 반박
 - 2.2. 정서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통해 본 사랑의 문제
 - 2.3. '신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무엇인가?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스피노자에게서 정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논의나 실천적 논의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스피노자는 욕망을 인간의 본질 자체로 파악한다.¹⁾ 이러한 존재론적 규정은 직접적으로 실천적 삶과 연관된다. "누구도 존재하고 행동하고 살기를,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함께 욕망하지 않는 한, 복되게 존재하고, 잘 행동하고, 잘 살 수 없다."²⁾ 즉, 정서와 삶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스피노자 실천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본성에 적합한 인식을 최대한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능동성을 최대로 올리고, 또한 수동성을 최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는 능동에 대한 정서 즉, '기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스피노자는 사랑을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³⁾이라고 정의하기

1) cf. 『윤리학』, 3부, '정서의 정의', 1번, p. 219

2) 위의 책, 4부, 정리 21번, pp. 264-265 (번역은 수정)

때문에, 사랑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철학에서 사랑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랑과 욕망은 지나칠 수 있"4)는 것이고, 공동체가 반목하는 이유가5)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에 대한 사랑'처럼 "질투나 시기심의 정서로 더럽혀질 수 없는"6) 사랑도 있고, 3종의 인식에 따라 생기는 영원한 사랑인 '신에 대한 지적 사랑'7)도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사랑은 어떤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첫 번째로, 스피노자 정서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이론과 스피노자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스피노자 철학의 독특함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서의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랑이라는 정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갖는 차이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사랑에 대한 스피노자의 철학이 갖는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하겠다.

2. 본론

2.1. 데카르트 정념론에 대한 스피노자의 반박

스피노자의 정서론은 데카르트의 정서론이 끝난 지점에서, 이를 반박

3) 위의 책, 3부, '정서의 정의', 6번, p. 222

4) 위의 책, 4부, 정리 44번, p. 287

5) cf. 위의 책, 3부, 정리 31번, 보충, p. 186

6) 위의 책, 5부, 정리 20번, p. 347

7) 위의 책, 5부, 정리 33번, p. 357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윤리학』 3부 서문과 5부 머리말에서 이러한 반박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3부 서문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정서론이 "자연 안의 인간을 국가 안의 국가처럼"⁸⁾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국가 안의 국가"란 데카르트가 자연법칙을 오로지 연장인 물체에만 적용하고, 정신의 영역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의 마지막 저서 『정념론』에서 잘 나타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27항에서 "정념을 영혼의 지각이나 감정 또는 동요라고 일반적으로 정의"⁹⁾한다. 그리고, 외부 대상에 대한 정념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동물 정기가 신체 안의 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되고, 뇌의 중심 안에 있는 샘(송과선)에서 영혼과 작용한다고 쓴다.¹⁰⁾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이 뇌 속 샘에서 의지 작용을 통해 운동과 정념의 연결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념에 대해 절대권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영혼은 없다"¹¹⁾고 말한다.

의지로서 정념을 다스릴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가 의지에 부여하는 특권적 능력에 기인한다. 데카르트에게 의지란 정신 안에 있는 가장 "완전하고 큰 것"¹²⁾으로 "가장 크고 무한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 신에게 속하는"¹³⁾ 능력이다. 이 자유로운 의지는 자연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인과관계로 정신에 나타난 정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의지란 인과계열을 따르는 하나의 사유 양태일

8) 위의 책, 3부, 서문, p. 151

9) 『정념론』, 27항, p. 42

10) cf. 위의 책, 23항부터 30항까지

11) 위의 책, 50항, p. 62

12) 『성찰』, 제4성찰, p. 84

13) 위의 책

뿐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각각의 의지 작용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규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작용으로 결정될 수도 없으며 (...) "¹⁴⁾ 따라서 자연법칙에 따라 결과 지어진 정념을 자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의지에게 없다는 것이다.

5부 머리말에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의 결합하는 곳으로 제시한 "샘(송과선)"에 대해 비판한다. "실제로는 의지와 운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정신의 능력이나 힘과 신체의 능력이나 힘 사이에는 아무런 비교도 있을 수 없다."¹⁵⁾

이는 데카르트식 이원론, 즉 신체와 정신의 속성을 각각 연장과 사유로 할당하는 이원론을 철저하게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서로 전혀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두 사물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물들은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¹⁶⁾

스피노자에게 신체와 정신은 양자가 서로 인과적으로 대립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실체의 두 가지 방식(즉, 연장과 사유)의 표현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와 같이 정신적 작용이 신체적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부적합한 관념을 야기하고, 인간을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에게 제시한 이상의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로운 의지가 정서를 제어할 수는 없다. 의지 또한 선행하는 사유의 어떤 양태에 의해 결정된 것임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단락에서 더 자세하게 논하겠지만, 정서에 대한 제어는 해당 정서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수동적인 정서에 대해 능동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신체와 정신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기 때

14) 『윤리학』, 1부, 정리 32번, p. 60

15) 위의 책, 5부, 머리말, p. 333

16) 위의 책, 1부, 정리 3번, p. 23

문에 신체에게 능동적인 것은 정신에게도 능동적이고, 정신에게 능동적인 것은 신체에게도 능동적이다. 바꿔 말해, 신체와 정신은 동일한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 정서에 대해서 기하학적 논의(즉, 공리에 따라 명석 판명한 정리들을 연역해 논의¹⁷⁾)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정서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통해 본 사랑의 문제

스피노자는 정서를, 발생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단계에 따라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 하는 정서들은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현행적 본질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원초적인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정서들은 이러한 원초적 정서들이 대상과 연관되거나, 다른 개체의 정서를 모방함으로써 변용되는 정서들이다.

원초적 정서에 해당하는 정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물의 현행적 본질을 구성하는 '자기 보존 성향(conatus)'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욕망. 둘째로, 자신의 활동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쁨. 마지막으로, 자신의 활동 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슬픔이다.¹⁸⁾

코나투스, 곧 '자기 보존 성향(conatus)'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개체의 현행적 본질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연의 역동성(dynamic)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

스피노자의 존재론에서, 특정한 물체나 특정한 정신은, 신 혹은 자연이 연장이나 사유를 통해 유한하게 표현한 실재이다. 이때 개체의 본질

17) 『윤리학』의 전체 이름이 『기하학적 방식으로 증명된 윤리학』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피노자 철학의 방법론인 '기하학적 방식'이 무엇인지는 스피노자 철학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논의의 간편성을 위해 '기하학적 방식'을 공리를 통해 단선적으로 연역해 나가는 과정으로 축소시켜 썼지만, 모로, 들뢰즈와 같은 연구자는 '기하학적 방식'이 이러한 단선적 연역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cf. 『스피노자 매뉴얼』, p. 136 이하, 『스피노자의 철학』, pp. 128-131)

18) cf. 『윤리학』, 1부, 정리 32번, 주석, p. 166

인 코나투스 안에는 그 개체와 모순되는 것, 즉 그 개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개체의 본질에 자신과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해당 개체의 본질을 비일관적이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불가능한 비실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우리가 개체 "그 자체만을 주의하고 외부의 원인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물 안에서 그 사물을 파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²⁰⁾

오히려, 개체는 이렇게 유한하게 표현된 역량을 가능한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즉, 개체들은 "자신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한다."²¹⁾ 이러한 자기 보존 성향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 돌은 깨뜨리기 어려운지, 왜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 힘과 마주치지 않는 한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려고 하는지, 왜 인간 신체는 질병과 싸우고,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을 욕망하는지"²²⁾ 코나투스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에 함께 연관될 때 이를 욕구라고 하고, 욕구에 대한 의식을 욕망이라고 한다.²³⁾

한편, 특정한 개체의 역량은 고정적이지 않다. 개체의 신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받는다. 이러한 신체의 변용에 대해, 그가 적합²⁴⁾한 관념을 가질수록 그의 정신은 능동적이게 된다. 반대로 이에 부적합한 관념을 가질수록 그의 정신은 수동적이게 된다. 우리가 더욱 능동적이게 될

19) cf. 『에티카를 읽는다』, pp.327-328

20) 『윤리학』, 3부, 정리 4번, p. 162

21) 위의 책, 3부, 정리 6번, p. 163

22) 『에티카를 읽는다』, p. 326

23) cf. 위의 책, 3부, 정리 9번, 주석, p. 165

24) 적합에 대해 스피노자는 『윤리학』 3부의 정의 1번에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하여 명석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을 때 나는 이 원인을 적합한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 자체에 의하여 이해될 수 없을 때 나는 그 원인을 부적합한 혹은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위의 책, 3부, 정의 1번, 번역은 수정

때, 즉 우리가 더욱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의 정서가 기쁨이다. 반대로 우리가 더욱 수동적이 될 때, 즉 우리가 더욱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의 정서가 슬픔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한다. 즉 우리는 가능한 기쁨과 싶어 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되는 외부 대상에 대해 사랑의 정서를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상을 소유하고 유지하고자"²⁵⁾ 한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대상들을 미워하고, 그것들과 멀어지고자 한다.

기쁨과 슬픔의 정서가 대상과 연관되어 사랑과 미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일견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피노자 정서론의 독창성은 그가 '정서의 모방'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정서의 모방이란, 우리와 유사성을 공유하는 어떤 것이 특정한 정서를 느낀다고 상상하면, 우리 자신도 그와 유사한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와 유사한 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무 정서도 갖지 않았는데도, 어떤 정서로 변용된다고 상상하면, 우리는 바로 이 때문에 그와 유사한 정서를 체험할 것이다."²⁶⁾

이러한 정서 모방의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 사랑이나 미움의 정서를 느낀다고 상상할 때, 그것을 더욱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된다.²⁷⁾ 또한, 유사성을 갖는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와 유사한 어떤 것을 미워할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미움을 느낀다. 즉, 정서의 모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이의 정서에 전염되기도 한다. 또한 정서의 모방을 통해 자신의 정서 자체가 강화되거나 제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의 모방은 어떤 논리적인 귀결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

25) 위의 책, 3부, 정리 13번, 보충 p. 169

26) 위의 책, 3부, 정리 27번, p. 180 (번역은 수정)

27) cf. 위의 책, 3부, 정리 27번 주석과 보충들, pp. 181-182

니다. 바꿔 말해, 이러한 정서의 모방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면서도 더욱 편협한 사람이 된다. 사랑의 외적 원인의 힘에, 자신의 역량이 압도되어, 자신의 신체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변용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1) 역량의 증가, 감소에 따라 나타는 정서와, 본질적으로 역량의 증가를 욕구하는 개체의 경향을 확인하고 2) 정서의 모방에 따라서 인간의 정서가 옮겨나, 강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음을 논하고 3) 따라서 이성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한에서 사랑은 "지나칠 수 있다"²⁹⁾는 것을 확인했다.

2.3. '신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무엇인가?

앞서, 사랑이 개체의 역량을 제한 할 수 있음을 논하면서, '이성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성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정서로서의 사랑은 유익한 정서이며, 사회적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성에 의하여 명석 판명한 이해를 할 때 능동적이게 되고, 이에 한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필연적으로 선이기 때문이다.³⁰⁾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각 인간의 역량의 증대, 곧 그의 덕을 증대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 전체의 선과 이어진다. "각 인간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할 때 인간은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다."³¹⁾ 이러한 견해는 계몽주의시기에 널리 동의 받은 주장이기도 하다.

28) cf. 위의 책, 4부 정리 38번, p. 282

29) 위의 책, 4부, 정리 44번, p. 287

30) cf. 위의 책, 3부 정리 31과 정리 35

31) 위의 책, 4부, 정리 35번, 보충 2, p. 275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스피노자가 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이 정서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인간이 세속적 삶, 지속적인 삶에서 이성보다 나은 '처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서에게 이끌리는 삶보다는 이성의 지도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 본성에 더욱 부합하는 삶이고, "우리가 수동인 어떤 정서에 의해 행하도록 규정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이 정서 없이 이성에 의해서도 하도록 규정될 수 있다."³²⁾

한편, '이성의 지도에 따르는 삶'은 말하자면, 하나의 본보기, 혹은 하나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예측은, 곧, 정서에 대한 예측과 정서에 대한 해방을 의미한다. '이성의 지도에 따르는 삶'은 우리의 행동 강령에 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정서의 예측으로부터 해방을 피하기엔 불충분하다. 정서로부터의 해방, 곧 인간의 자유를 위해 스피노자가 내놓은 궁극의 처방전은, 『윤리학』 5부를 양분하는 개념인 "신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다.

"신에 대한 사랑"은 개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얻은 신의 관념에 대한 사랑이다. 신 즉, 자연은 모든 것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³³⁾ 특수한 개체의 신체는 신의 변용에 따른 양태이기 때문에, 각 개체의 신체에 대한 적합한 관념은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게 된다. "정신의 신체의 모든 변용 또는 사물의 상을 신의 관념에 연관되게끔 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관념은 적합한 관념이기 때문에, 기쁨의 정서를 일으킨다. 또한 "각각의 관념이 포함하는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대한 인식은 적합하고 완전하"³⁵⁾기 때문에, 신의 관념은 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

32) 위의 책, 4부, 정리, 59번, p. 300 (번역은 수정)

33) 위의 책, 1부, 정리 15번, p. 37

34) 위의 책, 5부, 정리 14번, p. 345 (번역은 수정)

35) 위의 책, 2부, 정리 46번, p. 135 (번역은 수정)

의 관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고 수동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랑 곧 "신에 대한 사랑은 모든 정서 가운데 가장 항구적이고, 이 사랑은 신체에 연관된 한에서는 신체 자체와 함께가 아니라면 파괴될 수 없다."³⁶⁾

'신에 대한 사랑'이 지속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항구적인 정서라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영원의 관점에서, 스피노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영원한 상 아래에"³⁷⁾ 체험되는 정서이다.

'신에 대한 사랑'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에 대한 관념에 의해 생겨난다. 즉, 특정한 시간에 제한된 신체에 대한 관념 속에 포함된 신의 관념을 통해, "신이 현존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한에서"³⁸⁾ 느껴지는 기쁨,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이다.

한편, "신 안에 존재하는 신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관념"³⁹⁾은 개별적인 신체가 지속하는지에 상관없이, 영원히 신의 본질을 통해서 표현된다. 인간의 지속적인 정신은 자신의 신체와 함께 소멸하고, 지속적인 신체가 소멸됨에 따라 이로부터 나타난 모든 정서들('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은 사라진다. 하지만 신의 본질을 통해 직관되는 이러한 관념은 지속적이지 않고 신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영원하다.⁴⁰⁾

이렇게 영원의 상 아래에서 고찰된 정신은, 개별적인 자아나 의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개체의 기억이나 상상 나아가 의식은 신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지속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개체적 존재가 의식하는 사랑이 아니

36) 위의 책, 5부, 정리 20번, 주석, p. 348

37) 위의 책, 5부, 정리 23번, 주석, p. 351

38) 위의 책, 5부, 정리 32번, 보충, p. 357

39) 위의 책, 5부, 정리, 23번, p. 351

40) 위의 책, 1부, 정리 11번, p. 31

41) 4부 정리 39의 주석에 따르면 극심한 신체의 변용은 그의 의식 자체도 변화시킨다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영원의 상 아래에서 고찰된 인간 정신-이때 정신은 개체적 인간의 의식이 아닌, "사유의 특수한 양태로 변용 된 신"⁴²⁾이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의 사랑이다.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무한한 한에서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고찰된 인간 정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한에서,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 자체다. 즉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⁴³⁾

스피노자의 인식론은 흔히 제 1, 2, 3종의 인식이라 일컬어지는 계열을 갖는다.⁴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사랑이 갖는 3가지 의미는, 1,2,3종의 인식에 각각 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감각, 기억, 상상 등을 통한 인식을 의미하는 제1종의 인식에 따라 나타는 사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사랑으로 곧 '일상적 사랑(communis amor)'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그것이 우리 신체의 역량을 제한하는 한에서, 악할 수도 있는 종류의 사랑이다.

개별 양태들의 신체를 통해 적합한 인식을 쌓으며 생기는, 공통관념을 통한 인식은 제 2종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개체에 대한 적합한 관념으로서 신의 관념을 포함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응되는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amor erga Deum)'이다.

마지막으로 직관지에 해당하는 인식은 제 3종의 인식으로, 이는 "사물을 어떤 영원한 상 아래에서 인식하는 것"⁴⁵⁾이다. 영원성 아래에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는 "대수롭지 않"⁴⁶⁾다. 이에 대응되는 사랑이 '신에 대한 지적 사랑(amor intellectualis Dei)'으로 이는 인간의 지복(beatitudo)과 같은 의미이다. "지복은 3종의 인식에서 생겨나는 사랑인

42) 『에티카를 읽는다』, p. 449

43) 위의 책, 5부, 정리 36번, p. 359 (번역은 수정)

44) cf. 위의 책, 2부 정리 40번

45) 위의 책, 2부, 정리 44번, 보충 2, p. 134

46) 위의 책, 정리 38번, 주석, p. 362

신에 대한 사랑에 있다"⁴⁷⁾

이러한 의미의 사랑은 더 이상 완전성으로의 이행으로서 정의되지 않고, "이 능력과 완전성의 온전한 형식적 소유에 의해서 정의"⁴⁸⁾된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영원성의 양태에 기초해서, 그것들의 원천인 적합한 관념들과 함께 설명된다."⁴⁹⁾

3. 결론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윤리학』의 체계에서 사랑이 적어도 3가지의 큰 구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스피노자는 열정에 휩싸인 사랑이 아닌, 이성적으로 지도된 사랑을 옹호했다.

스피노자는 "우리는 우리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며 경험한다."⁵⁰⁾라고 쓰며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현세에서도 가능함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3종의 인식을 통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 이르는 것은 여전히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나, 종교적 인격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는 제3종의 인식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고⁵¹⁾, 적합한 인식을 통해 형성된 공통관념, 즉 이성에 따르는 삶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윤리학』 4부의 내용 전체와 특히 4부의 부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47) 위의 책, 정리 42번, p. 366 (번역은 수정)

48) 『스피노자의 철학』, p. 81

49) 위의 책

50) 『윤리학』, 5부, 정리 23번, 주석, p. 352

51)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위의 책, 5부, 정리 42번, p. 367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인식의 논의가 확장되면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부푼 공갈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린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3종의 인식보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것. "정신은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관용에 의하여 정복된다"⁵²⁾는 것. 우리는 소박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교훈들을 『윤리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52) 위의 책, 4부, 부록, 제11항, p. 318

□ 참고문헌

○ 원전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역, 파주 : 서광사, 2016 (개정판, 제8쇄).

르네 데카르트, 『성찰』, 이현복 역, 서울 : 문예출판사, 2016 (1판, 제17쇄).

-, 『정념론』, 김선영 역, 서울 : 문예출판사, 2013 (1판, 제2쇄).

Benedict de Spinoza, *Ethics*, trans. Edwin Curley, London : Penguin Books, 1996.

○ 연구서

박기순, 「스피노자의 '자유로운 인간' :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제41집, 2008.

스티븐 내들러, 『에티카를 읽는다』, 이혁주 역, 서울 : 그린비출판사, 2016 (초판, 3쇄).

이현복, 「스피노자의 신의 사랑」,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편, 제36집, 2006.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역, 서울 : 민음사, 2017 (2판 12쇄).

피에르-프랑수아 모로, 『스피노자 매뉴얼 : 인물, 사상, 유산』, 김은주·김문수 역, 서울 : 에디토리얼, 2019 (초판, 1쇄)

학부생 논문과 논평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난 사랑의 다중적 의미」에 대한 논평 -
조지환(서울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석사과정)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다중적 의미」에 대한 논평

조지환

7.

저자는 서론에서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하며 논문을 시작한다. 첫 째, 스피노자 철학에서 사랑은 어떤 다중적인 의미들을 갖는가? 둘째, 저 의미들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함의란 무엇인가?

저자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째, 저자는 정서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데카르트의 입장과 대비시킨다. 여기에서 의지의 역할 또는 능력의 크기에 대해 저 둘이 빛나는 차이가 확인된다. 데카르트에게서 의지는 정신 안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실상 무한하고) 단독적으로 자유로웠기에 정서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피노자에게서 그것은 그저 하나의 관념일 뿐이며, 신체나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없다. (저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스피노자는 특히 2부 정리 49의 보충과 주석에서도 이를 확실히 한다.)

둘 째, 정서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론 전반을 개괄한다. 스피노자가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 정서가 우리 역량의 감소 또는 증대임을 확인한다. 그럼으로써 수동적 정서로서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것이 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또한 함께 확인한다.

셋 째, 신에 대한 사랑과 신의 지적 사랑 사이의 구별을 확인한다. (저자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나는 “amor Dei intellectualis” 또는 “amor intellectualis Dei”를 “신의 지적 사랑”

이라고 쓸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여기까지 저자는, 주요한 정리들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방대한 『윤리학』의 논증을 요약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실성을 갖춘 채 작업하고 있다.

흔히 개론적 성격의 철학사 책들에서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독특성에 합당한 무게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의 형이상학에 대한 서술로 인해 윤리학이 희생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면 이 논문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주요 개념을 해명하고, 그 이론의 철학사적 배경 또한 함께 조명함으로써, 『윤리학』 3부 이하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생들에게 스피노자를 보다 풍부하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학술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작지 않은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자신의 두 번째 물음을 위해 들인 노고는 썩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 저자가 제시하는 스피노자 철학의 실천적 함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라는 강령이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지침이며, 단지 『윤리학』의 결론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덕이다. 저자는 이것을 소박한 교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소박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피노자에게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4부 정리 37의 증명에 따라, 그것은 이성에 따라 사는 이가 자신의 역량이 증대하는 만큼 다른 이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것일 테다. 이는 곧 그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리라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서 자유인이란 이웃들을 가

르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이웃들이 각자 자기의 정서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능동적이게 되게끔 한다. 자유의 크기는 앎의 크기이고, 한 사람의 앎의 크기의 증가는 그의 이웃들의 자유의 크기의 증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계몽주의자 스피노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의 역량이 증대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변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광학적 앎의 증가는 더 좋은 안경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안경은 눈이 흐린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보는 것을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며, 그들이 보는 것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유인은 자신의 이웃들로 하여금 더 가까이 다른 낯선 신체들을 지각하도록 이끌 것이며, 그들이 다른 신체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신체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신체들로부터 더 큰 기쁨을 느끼도록 이끌 것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진술들에서 더 급진적이 된다. 스피노자는 홉스적 계약론의 발단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포로 인해 사회적 상태로 들어간다. (4부 정리 37의 주석 2.) 그러나 그가 이성에 따라 자유로워졌을 때, 그는 더 이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앎과 자유를 위해 그 국가의 상태를 유지한다. (4부 정리 73과 주석.) 그리고 그는 동료 시민들을 가르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권자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홉스적 계약론에서 빠져나오는 듯 보인다. 시민들이 이성에 따라 살 때, 더 이상 주권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국가의 결정에 복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공포의 제거라는 주제는 오늘날 더더욱 큰 함의를 갖는 듯하다. 지난 2018년 예멘 난민들이 한국 입국을 요구했을 때, 많

은 사람들이 그릇된 정보들로 인하여 난민들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고, 끔찍한 비난들을 섞어가며 난민 수용을 거부했다. 이성에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아닐까? 부적합한 관념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고, 그 공포가 증오로 번져가는 일(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의 서문에서 미신에의 예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막도록 하며,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가르치는 삶이 아닐까?

스피노자 윤리학의 실천적 함의에 관하여, 저자는 4부에 등장하는 여러 정리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피노자 윤리학의 실천적 함의가 다소 단조롭고 추상적인 강령으로 수축한 듯 보인다. 이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 저자에게 더 많은 지면과 시간이 주어졌다면, 저자 또한 더 큰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ㄴ.

나는 저자에게 『윤리학』 5부에 대해 또 다른 독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저자는 제 3종 인식이 신의 지적 사랑에만 관계하며, 지복이란 오직 저 지적 사랑이라고 쓰고 있다. 어찌면 이것이 부당한 독해는 아닐지도 모른다. 분명 스피노자는 정리 32번에서 3종 인식이 신의 지적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정리 33의 주석에서는, 기쁨이 더 큰 완전성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때, 지복은 정신이 완전성 자체를 가지는 데에 있다고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스피노자는 신의 영원한 사랑 뿐 아니라, 신의 무한한 정신 안에 유한한 정신에 대한 영원한 관념이 있음을 파악하면

서도 여전히 지속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가, 저 영원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누리는 사랑 또한 3종 인식의 결과물로 보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분명 그렇게 쓰고 있다.

저자는 지복이 신의 지적 사랑임을 보이기 위해 7쪽에서 5부 정리 42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5부 정리 42의 증명에서 스피노자는 amor intellectualis Dei가 아니라 amore erga Deum에 대해 쓰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3종 인식에 지복이 따른다고 쓰면서, 그 지복이 신에 대한 사랑에 있다고 쓴다. (“Beatitudo in amore erga Deum Consistit”). 곧, 신의 지적 사랑 뿐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 또한 3종 인식에서 생겨나는 지복인 것이다.

나는 저자가 3종 인식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론에서 저자는 그것을 해탈의 경지에 빚대고 있다. 내가 보기에 저자는 영원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정신이 시간과 무관해진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2부 정리 47에 따라, 3종 인식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더 많은 개물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 인식이다. 5부 정리 27에서도 스피노자는 신을 인식하는 것이 곧 3종의 인식이자 덕이며, 이 덕은 더 많은 사물들을 이해할수록 커진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5부 정리 14에서 16까지, 그는 신체의 변용이 신의 관념에 연관될수록 신에 대한 사랑이 정신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진다고 쓴다. 이로 보아 스피노자는, 지성이 신의 인식에서부터 더 많은 개물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 가짐으로써, 이성적이며 능동적인 부분이 정신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의 사랑을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쓰고 있다. 지복은, 완전성 자체를 소유한 정신(실상 신의 정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성을 키워가는, 요컨대 자신의 이성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자신의 수동적 부분보다 더 크도록 노력하는 정신에도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5부 정리 38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3종 인식에서는 시간적인 개체들이 대수롭지 않아질 것이라고 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5부 정리 38이 진술하는 바는 그런 것일 수 없다. 만약 3종 인식에서는 시간적 개체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더 많은 사물들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 앎을 3종 인식이라 하겠는가? 5부 정리 38의 주석은, 5부 정리 16에 따라, 3종 인식으로 인해 신에 대한 사랑이 정신의 과반을 차지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정신에서 훨씬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진술이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신과 원인이 결국엔 동일한 것이며 신은 단지 원인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신에 대한 인식에서 사물들에 대한 인식을 끌어낸 다 함은 여러 개물들을 발생케 한 형상적인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안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부 정리 30에 따라, 영원한 상 아래에서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 실체의 속성에 의존함을 안다는 것이다. 가령, 운동하거나 정지하는 여러 물체들이 연장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럴 테다. 이 때 우리는 개물에 대해 그 사물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개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실체의 속성으로부터 개물이 산출됨을 알 것이다. 물론 2종 인식에서도 적합한 관념은 모두 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2부 정리 45에 따라 결과로서의 개물의 관념은 원인으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의존 관계가 정렬되어 명시될 때, 그리하여 개물의 관념이 신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될 때 그 인식은 3종 인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3종 인식을 획득할 때, 우리 자신의 정신이 곧바로 시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삶이 지속을 탈출한다면, 우리는 유한 양태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하다. 신의 무한한 지성 안에 우리 정신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관념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오직 유한하게만 신의 정신을 표현하며 산다. 우리는 무엇이든 지속을 거쳐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확히는,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반드시 그 이해를 보존하려 노력한다. 보존 성향은 우리의 현행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알렉상드르 마트롱은 『윤리학』 5부를 독해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이 인식[3종 인식]은 그 자체로는 영원하지만, 우리는 이를 지속 안에서 조금씩 의식해 간다. 곧, 우리에게 3종의 인식은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양 보이며, 또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편이 보다 편리하다. 물론 3종의 인식은 직관적일 것이다. [……] 그러나 이 인식의 대상은 우리에게 단번에 발견되지는 않는다. 3종의 인식은 신의 속성으로부터, […] 개체적 본질로 나아간다.¹⁾

내 주장은 이렇다.

첫째, 3종 인식이 우리의 인간적 삶과 단절된 해탈의 경지 같은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덕이 아닐 것이다. 4부 정리 18의 주석에 따라, 이성(이성)은 우리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요구하지 않고, 덕은 우리 본성의 법칙에만 따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게 3종의 인식은 실체의 속성과 개물의 본질 사이의 형상적 인과 관계에 대한 인식이며, 전자로부터 후자가 따라나옴을 아는 인식이다. 그것은 실체의 속성을 곧장 이해하기에 영원의 관점에서의 인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의 관점을 인식하는 인간이 지속의 관점을 폐기할 수는 없다. 도리어 그는 지속하는 개물들을 더 많이 알고자 한다.

1) A. 마트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김문수·김은주 역, 그린비, 2008, 801 쪽.

둘째, 신의 지적 사랑 뿐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 또한 3종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은, 저자가 썼듯이 “지속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항구적인” 기쁨이다.(6쪽.) 이것은 도달될 수 있고, 일단 많이 알고 나면 그 앎을 보존하려 하고 또 더 많이 알려하는 우리 본성에 부합한다.

논문의 결론에서 저자는 최고의 덕이 드물고 어렵다는 『윤리학』의 마지막 증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4부 정리 36을 그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고 싶다. “덕을 따르는 이의 가장 높은 선은 모두에게 공통되며, 모두가 동등하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학부생 논문과 논평

경험 기계에 들어갈 것인가? - 이수안 (본교 철학과 1학년)

경험 기계에 들어갈 것인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불교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안

< 목차 >

I. 서론

II.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III. 본론

- 1)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지 않은 이유 - 고통도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가. 때로는 고통이 더 나은 사회와 개인을 만든다.
나. 세상에는 단순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이외에 더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다. 고통이 없다면 건강과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다.
- 2) 현실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 불교 이론을 중심으로
가. '공'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버린다.
나.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
- 3) 경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심한 장염에 걸려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출석은 해야겠다며 침대에 누워, 반쯤만 눈을 뜬 채 교수님 목소리를 들었다.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듣는 터라,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수업 내용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반대쪽 귀로 나오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할 때쯤, 교수님께서 철학의 유명한 사고실험 하나를 소개 해주신다.

“당신에게 바라는 어떤 경험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 기계를 상상해 보자. 뇌과학자는 당신의 뇌를 자극하고, 따라서 당신은 위대한 소설을 쓰거나, 친구를 만들거나, 재밌는 책을 읽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수조에 떠 있고, 뇌에는 전극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당신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인생 경험을 얻기 위해서 기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수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뇌에 전극을 꽂을 건가?” (R. Nozick의 *Pleasure Machine* 노직의 경험 기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망설임 없이, 뇌에 전극을 꽂겠다고 대답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로서는 교수님의 제안은 정말 솔깃해 보였다. 아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나는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만 한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졌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고 좋아하는 철학 수업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졌다. 고통은 나에게 악영향만을 미칠 뿐이고,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고통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마약, 섹스만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든 가장 행복을 가져오는 삶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보았다.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려는 찰나에, 교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교수님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듯 정답 없는 질문을 던져주셨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을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 학우분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내 생각을 점점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불교적 사상의 내용이 포함된 『싯다르타』와 『삼국유사』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전극을 꽂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유와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본고를 이어나가 보려고 한다.¹⁾

II.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경험 기계는 쾌락주의²⁾를 비판하기 위해 노직이 고안한 사고실험이다. 경험 기계는 행복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해주는 가상의 기계이기 때문에 경험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쾌락을 본래적 가치로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직은 우리가 주관적 행복 이외의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쾌락주의는 잘못되었다는 교훈을 도출한다.³⁾ 나는 아직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노직처럼 쾌락 이외의 다른 본질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쾌락이 본질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과 행복을 원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이 쾌락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 쾌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현실에서만 원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험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을 내렸다.

본론에서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유를 고통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소극적 쾌락⁴⁾의 관점에서만 행복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승불교에

1) 본 내용은 동국대학교 조종복 교수님의 '불교와 인간' 강의 자료 및 내용을 일부 인용함.

2) 쾌락만을 본래적인 선으로 여기는 입장으로 공리주의를 포함한다.

3) 윤보석(이화여대), 『행복과 가치』 철학 논집 제 46집 2016년 p.3

4) 방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서는 고통인 현실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열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이론을 통해 현실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경험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이유의 논리 전개 과정 (II의 개요식 내용 요약)

1.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 =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
2. 쾌락 = 자연적인 본성으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 ≠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것 (쾌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님.)
3. 즉 경험 기계에 들어갔을 때, 자연적 본성의 욕망을 채울 수는 있더라도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이룰 수는 없다.
4. 이 둘을 모두 이루려면 현실 세계에 남아야 한다.
5. 따라서 경험 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현실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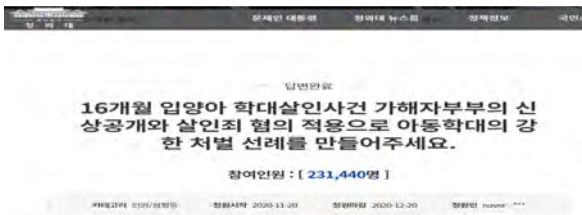
III. 본론

1)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지 않은 이유 - 고통도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가. 때로는 고통이 더 나은 사회와 개인을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진실과 소식들을 접한다. 그러나 그 진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최근 있었던 뉴스인 일명 ‘정인이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정인이 사건은 양모가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여 결국 입양아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사실 이 사건

은 처음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청원하였고 결국 양모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이 예시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고통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접한 후 격분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즉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 불편한 진실은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를 한다는 것



이다.

그림 1 정인이 사건 관련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화면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고통의 경험 속에서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를 보고 고통을 느끼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고 세상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다. 현실 속의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킬 커다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필자의 실제 경험에서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명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을 텐데도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고통의 경험을 실제로 겪은 이후로 무단횡단은 좋지 않다는 깨달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었다.

나. 세상에는 단순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이외에 더 본질적인 가치

가 존재한다.

앞의 정인이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사람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른 응보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죄질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불편한 진실과 같은 고통을 회피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문제 상황에 개선 의지를 느꼈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이외에 더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 또한 그렇다.

또한 사회 운동 단체나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만 보아도 '범죄의 경중에 따른 응보의 실현' 외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해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고통이 없다면 건강과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다.

글의 서론에서 이미 이야기한 장염에 심하게 걸렸던 경험을 빗대어 설명해보자면, 나는 며칠 동안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과 삶에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살아있고 다시 건강해짐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뒤로는 먹는 것에 조심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다.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그렇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불안과 고통이 있을 때 삶을 더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규정한다. 죽음의 기분에 직면한 현존재는 비로소 자신의 '본래적 삶'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한다.⁵⁾ 갑자기 일주일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일주일을 평소와 같이

5) 이슬희(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하이데거와 불교의 죽음관』 2018 page.4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삶이 아마 자신의 본래적 삶이 될 것이다. 매일 회사와 집을 드나드는 것을 반복하는 회사원이 갑자기 짐을 싸 들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학생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불안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의 답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있음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려준다.⁶⁾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불안과 고통이 우리를 실존적으로 살게 해준다. 하지만 어떤 이가 경험 기계에 들어가 죽음이라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본래적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하이데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자각과 불안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위한 기회로서 사용된다.⁷⁾ 붓다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임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몸이 가냘픈 끼사 고타미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아들을 낳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겨우 걸음마를 뗐을 때 그만 죽어버렸다. 그녀는 전에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슬픔에 북받친 채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 아기를 살릴 약을 주세요!” 라고 애원하였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서 오면 아들을 살려 주겠다고 했다. 겨자씨를 얻으러 다녔지만,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었다. “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나만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모든 집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구나.” 모든 이

6) 이슬희(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하이데거와 불교의 죽음관』 2018 page.24

7) 이슬희(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하이데거와 불교의 죽음관』 2018 page.27

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자 죽은 아들에 대한 그녀의 슬픔이 사라졌다.⁸⁾

불교에서 죽음은 오온의 해체에 불과한 것이다. 오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오온은 색(육체, 물질) 수(느낌, 지각) 상(표상, 생각) 행(욕구, 의지) 식(마음,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즉 항상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또한 무상하다. 질료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간은 죽음을 포함한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은 생을 깨달음과 참된 자유를 위해 살아내고자 한다.⁹⁾

2) 현실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 불교 이론을 중심으로

앞서 본론 1)에서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유를 알아보았다. 본론 1)에서 고통이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앞서 이미 설명을 했듯이 인간은 자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다. 현실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본론 2)에서는 그 방법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8) 『Dhammapada Commencary』 8-13 page.302

9) 이슬희(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하이테크와 불교의 죽음관』 2018 page.29

가. '공'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버린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집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압박감과 불안감이라는 고통은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집착'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공은 언제나 있으며 없어지는 것은 없다는 뜻으로 여백에 비유할 수 있다. 여백은 공백과 다른 것으로 여백은 꼭 찬 것이고, 공백은 '무'를 의미한다. 즉 공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실체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실체는 독립적이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항존하는 것이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무상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실체를 전제했을 때 서구의 논리학에서 생기는 동일률과 모순율의 논리를 지향하지 않는 것이다. 잠깐 동일률과 모순율을 설명해보자면 동일률은 모든 사물, 명제는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항상 $a=a$ 라는 것이다. 모순율은 동일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a 는 항상 a 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a 가 b 가 될 수도 있고 c 가 될 수도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법씨를 심

으면 싹이 되고 또 밥이 되는 것이지,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실체가 있어 모든 것이 독립적이고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쌀이 밥이 될 수 없고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다. 결국 항구 불변한 실체란 없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양한 계기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인연 화합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이라고 하고 있다. ‘공’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것이 무상한 것임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도 입시를 겪는 상황 또한 변할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입시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 지금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 사성제는 고통에 관한 진실, 괴로움의 본질을 파악하게 한다. 붓다는 고통의 진리를 발견하여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다.¹⁰⁾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다. 고성제는 현실의 결과이자 고통이다. 생로병사는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집성제는 현실의 원인인 고통이 집착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애욕이 있고, 모든 것이 변해감을 깨달지 못하는 무지인 무명이 있다. 멸성제는 도성제를 따름으로서 고통이 멸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상세계의 결과가 소멸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해탈은 무명에서 벗어난 상태로 깨달음

10) 원혜영,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고통의 창조성과 치유방법들 초기불교의 고통 중심으로』 2013 page.3, page6

의 경지라고 할 수 있고 열반은 윤회에서 벗어나고, 연기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부처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성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세계의 원인이자 바른길이다.

이 사성제를 이해한다면, 고통을 겪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의사가 증상을 관찰한 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 그 병을 이해할 수 있듯이¹¹⁾, 고통의 본성을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과 충분히 접촉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¹²⁾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불안감과 압박감이라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압박감과 불안감을 잘 들여다보고 그 원인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집착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고통은 추억도 되고 유희도 된다.¹³⁾ 고통을 나를 발전시키고 깨달음에 도달하게 만드는 ‘경험’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그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있다.

3) 경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

앞서 현실 속에서 고통을 치유할 방법을 설명해 보았다. 그런데 그 치유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면,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의 고통’으로 규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이루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진통제 사용

11) 원혜영,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고통의 창조성과 치유방법들 초기불교의 고통 중심으로』 2013 page.23

12) 원혜영,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고통의 창조성과 치유방법들 초기불교의 고통 중심으로』 2013 page.24

13) 원혜영,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고통의 창조성과 치유방법들 초기불교의 고통 중심으로』 2013 page.24

이외에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이 불가피한 경우를 한정으로 경험 기계를 안락사¹⁴⁾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이 행위에 있어서 허용 조건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 대리 결정의 문제,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문제 등 허용 조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IV. 결론

지금까지 내가 경험 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선택에 대한 전제는 쾌락이 선이 아니라는 전제가 바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것이 '선' 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아직 규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깨달음을 주며 세상에는 쾌락 이외에 본질적 가치를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나 또한 그렇다. 그리고 고통은 삶을 더 충실하고 본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은 불교에 있었다. 불교의 교의인 '공'과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면,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14)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며,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 참고문헌

◆ 학위논문

- 윤보석(이화여대), 『행복과 가치』 철학논집 제 46집 2016년 8월
- 이슬희(서울 수송초등학교 교사) 『하이데거와 불교의 죽음관』 공자학 제35호 2018
- 원혜영,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고통의 창조성과 치유방법들 초기불교의 고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3
- 곽만연, 『불교의 안락사관 연구』 새한철학회 2009
- 하우진, 『불교의 행복론 열반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2017
- 오재호, 『쾌락주의 계보와 공리주의』 대한철학회 2010
- 박건주, 『불교에서 보는 생명윤리와 자살의 문제』 전남대학교 종교문화 연구소 2010
- 안성두, 『불교에서의 행복에 이르는 길 비심의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1
- 김한상, 『초기 인도불교의 고행 느낌과 갈애』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9

학부생 논문과 논평 :

「경험기계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평 - 강유찬
(본교 철학과 2학년)

「경험기계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평

강유찬

저자는 본인의 아팠던 경험을 서론에서 제시하며 논문을 시작한다. 노직의 경험 기계 사고실험을 바탕으로 ‘고통 없는 삶이 정녕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불교적 사상을 통하여 그 답을 찾는 과정을 본문에 서술했다. 저자는 먼저 경험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근거로 뒷받침하였는데 첫째로는 고통의 필요성을 서술했었다. 저자는 고통의 필요성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그 예시로 얼마 전 전국을 분노하게 한 ‘정인이 사건’을 통하여 이 고통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가치에는 단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셋째로는 고통이 있기에 건강과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 뒤에는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불교의 ‘공’이라는 개념과 사성제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경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뒤 결론으로 정리하며 글을 끝마쳤다.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타당한 근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나는 독자들을 배려하는 서술 방식에 가장 눈길이 갔다. 이 글에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현실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예시로 그 깨달음을 서술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저자의 생각을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훨씬 용이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인상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서구의 논리학에서 다루는 동일률과 모순율의 원리를 부정하며 설명한 부분, 독자가 모를 법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에서 독자를 향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경험 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는 것이 아닌 예외 상황을 상정해둔 것 또한 인상적이라고 느꼈다.

대부분의 내용에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경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저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본래적 가치를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고 서술하며 경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스티븐 호킹이라는 학자의 사례와 본론 1의 ‘다’부분에 저자가 인용한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들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이다.

먼저 스티븐 호킹은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에 걸린 물리학자로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50여년을 병마와 싸워가며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스티븐 호킹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조차 쉽게 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의 연구를 계속하여 특이점 정리, 호킹 복사와 같은 업적을 이루어냈고 미국 최고 시민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 울프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극심

한 고통으로 본래적 가치를 이루기 힘들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것 같다.

두 번째로는 하이데거를 통하여 얘기해 볼 것이다.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의 2.3.1 death파트를 보면 'When I take on board the possibility of my own not-Being, my own being-able-to-Be is brought into proper view. Hence my awareness of my own death as an omnipresent possibility discloses the authentic self (a self that is mine). (*Being and Time* 50: 294)'¹⁾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나 자신의 비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나 자신의 존재 가능성은 적절한 관점으로 이동한다. 이런 이유로 나 자신의 죽음을 어디에나 있는 가능성으로 알고 있는 나의 의식은 진정한 자아를 드러낸다'는 뜻인데 나는 이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불치병의 환자의 상황에 대입해서 볼 것이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불치병에 걸린 상황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오히려 나 자신의 비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비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임으로 나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적절한 관점으로 보게 되고 이는 곧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본래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또한 '불치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명제를 반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Wheeler, Michael, "Martin Heidegger",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20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20/entries/heidegger/>>.

자유글

사랑의 가족

권순용

사랑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말은
부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더이상 그들에게 쓰지 않는 말
사랑스러워. 꼬물거리는 강아지들과
작고 나약하다고 믿는 것들, 아름다운 눈웃음과
사랑해. 애인과의 약속. 애인이란
사랑의 동어반복. 검고 빛나는 중력
(궤도를 돌 때 자성의 짜릿함은 행성에 정착하는 순간 정상중력이
되어 무더진다.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믿으면 이별한다. 그러나
행성이 사라진다면 거대한 무중력을 경험할 것)
DNA에 각인된 수만 겹의 기억과 부모-동물-애인에 대한 사회의 원
형적 이미지.
특정한 전기자극에 습관된 이름.
사랑은 대상 간에 발생하는 힘. 전기자극과 중력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
사랑을 사랑하는 이는 추락할 것 같은 힘의 충동을 사랑한다. 그러
나 행성이 새장이 되려할 때 그는 고리를 끊고 떠난다. 사람을 사랑
하는 이는 힘의 원천인 행성을 사랑한다. 그는 행성을 궁금해하고
행성의 변화를 지켜보기도 한다.
그리고 순환된 질문.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사랑은 완전히 분석되지 않는다. 그 어떤 분석도 사랑을 정의하지
못한다.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은유, 과장된 감상들, 그 과장이 진실인 순간
들

열정

김기동

“오타쿠”라는 표현이 있다. 일본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본디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게임 오타쿠”라 표현하면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하게”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일본에서 “오타쿠”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은 오타쿠 외에도 “장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초밥 장인”은 초밥을 만드는 것에 몰두하여 모두에게 그 행위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일 것이다. 다시 말해, “오타쿠”와 “장인”의 차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 혹은 존경을 받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타쿠”는 매우 협소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식한 표현으로 “서브컬처”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에서부터 파생된 특유의 색깔을 가진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타쿠”라고 부른다. 오타쿠들이 향유하는 서브컬처는 자랑하기엔 부끄럽게 여겨졌고, 이를 자랑하고 다니는 오타쿠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 비속어와 합성하여 그를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오타쿠가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었다.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이다. 어느 날 교무실로 선생님이 반장이었던 나를 불렀다.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오타쿠라고 놀림을 받는다고 선생님 당신께 상담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같은 학년의 담임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젊었던 당신은 날더러 그 친구가 학교에서 더 이상 ‘낮부끄러운’ 소설책을 읽지 못하도록 나에게

학급 환경을 단속하라 일렀다.

많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명분이 생겨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의 낮부끄러운 행위는 소설책의 표지뿐만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 대체 어디서 나올 법한 이름인지 모를 등장인물들의 긴 이름을 줄 줄 네임펜으로 적었고,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뺏어든 그의 연습장에는 선도 간결하지 않은 채 어설피게 그려진 등장인물들의 그림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낮부끄러웠던 것은 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가 잘못되었다고 탓할 때, 그는 자신의 행위 - 혹은 자신이 그런 쪽으로 이끌려감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굳세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소설책을 뺏어 들거나, 그 친구가 소설책에 집중할 때 주변을 돌아다니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갈기는 등의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똑같았다. 선생님들이 뭐라 해도 굳세었던 그 친구가 내가 뭐라 한들 통하겠는가? 그 친구는 계속해서 소설을 읽었고, 전혀 통하지 않는 경고를 줘야했던 나는 얼마 안 가 지쳐 그 친구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소설을 읽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는 읽지 않기, 쉬는 시간에도 표지는 벗기고 읽기, 자리 바꾸기를 할 때 당첨된 아이가 불쾌하지 않도록 책상에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낙서하지 않기 등. 어느 샌가 모두가 그 친구에게 불쾌한 관심을 끄기 시작했지만, 그 친구의 독서 - 아니, 서브컬처를 향한 오타쿠적인 집착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똑심 있게 지속되었다. 또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축구를 할 때 한 사람이 비어도 절대 부르지 않았던 그를,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 친구가 똑심 있게 보던 그런 소설들이 뭔지 궁금해서 그런 쪽을 알아보다가 그와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들도 생겨났다. 그가 학교에서 유행하는 게임

을 잘한다는 소문에 딸려 게임을 같이 하자고 조르는 친구들도 생겨났다. 비록 졸업식 뒤풀이 자리에 그는 없었지만, 분명 많은 친구들이 그와 헤어짐을 약간 아쉬워했다. 나 역시 그랬다. 그 후 오랫동안 그 친구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여러 많은 중학교 동창들도 연락이 끊겼다. 그렇게 나는 올해까지 지내왔다.

몇 달이 되지 않았던 일이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세 번 정도는 연락이 오던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다. 그 친구를 기억하느냐고 대뜸 물었다. 그 오타쿠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며, 물론 기억한다고 말을 하니 그 친구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 내가 교육청에서 소설을 쓰는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내 연락처를 찾고 있다고 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그 동창을 통해, 정말로 오랜만에 그 친구와 연락했다. 십 몇 년 간이나 만나지 못했으니 그 친구라 주장하는 전화기 너머에서의 목소리는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았다. 그에 대한 피어오르는 궁금증에 그 친구와 만날 약속을 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나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그가 그렸던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만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선생님이 뺏어들던 그 연습장에 그려진 지저분한 선과 조소가 나오는 그림이 아니었다. 여러 웹툰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을만한 그런 그림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화를 위해 스토리를 구상중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가 그린 단편적인 만화와 그림들, 그리고 설정집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업을 이유로 소설 창작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학업은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 시절의 나는 교육청에서 하던 창작 수업에서 소설의 재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선생님은 소설이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띠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밌더라도 불쏘시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와 반대로 재밌지 않더라도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띠다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는 그 주장이 거북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모든 창작 수업은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이나 사회 문제의 소재 적절성 등을 따지는 내용으로 가득 찼고, 이에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창작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학업을 이유로 자격을 포기했다.

친구는 중학교 이래로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림 실력이 완성되기 이전 어설했던 그림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 욕을 먹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런 소설들을 학교에서 꺼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담임선생님은 자신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연습장의 그림들을 쓰레기로 취급했다. 그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였지만 새벽에 좋아하는 만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수록, 자신은 이것들이 정말로 좋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니, 못 그린다는 비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인정으로 바뀌었다. 미술이나 만화 쪽으로 진로 계획서를 정하고 난 뒤, 다른 친구들은 문제집을 풀 때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락되었다. 연습장의 단편 만화들은 반이나 복도에서 돌려보는 친구들의 재미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오타쿠적인” 행위를 반복한 끝에 만화가 데뷔를 위한 한 걸음을 남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낮이 부끄러워졌다. 그에게는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실 때문이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날, 웹소설이 돈이 된다는 기사를 읽고

나는 오래된 내 창작 기술을 살려 웹소설에 도전하려 했다. 웹소설은 오타쿠들이 주로 향유하는 서브컬처 문화의 일종이라 생각했고, 거기서 주로 잘 나가는 소재들이나 문체 등을 채굴하여 써낼 수 있다면 나도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오만해져 있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나는 어느 소재에 대한 이해가 전혀 깊지 않은 채로 그 소재를 채굴해 온 소설을 따라하는 모방범이라든가, 순수 문학을 전공해놓고 웹소설을 순수 문학보다는 하위의 문화로 비하하는 악성이라든가, 웹소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위 “벽돌”이라는 읽기 싫은 문체로 쓰는 실력 없는 놈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한 평가 절하들이나 비난들은 매우 짧았던 웹소설에 도전했던 나의 도전을 스스로도 비하하게 만들었다. 그 때는 돈을 편하게 벌고 싶어서 정신이 없었다니, 잘 하지도 않았던 것을 막상 다시 하려 하니까 잘 되지 않았다는 등.

하지만 그 친구는篤심 있게 서브컬처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왔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었다 : 서로의 중학교 시절, 어렵פות이 품었던 그의 만화가라는 꿈은 이루어졌고 내가 확고하게 품었던 소설가라는 꿈은 스러졌다. 나는 정말로 것처럼 무언가에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나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에 열정적인 척하면서 사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거워지거나, 그것에 쏟을 열정이 부족해지면 금방 그 만들 뿐이었던 것이 아닐까? 어느 샌가 낮부끄러운 줄 모르고 불타오르던 그의 열정은 내 낮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사랑하며 살자!

최홍석

사랑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하니 왜지 모르게 조금은 낮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항상 사랑하고 학창 시절에는 게임을 사랑해보기도 하고 남들 모르게 쓰러린 사랑을 경험해보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랑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연으로 인해 속이 너무 쓰릴 때 이런 고민을 종종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 사랑이란 게 뭘까!’ 저는 군대에서 이병 시절을 보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트와이스의 ‘what is love?’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면서 혼자 생각에 잠길 때면 이러한 질문을 혼자 되새겨 보고는 했었는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변 친구들과 ‘사랑이 뭘까’라는 주제랑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컴퓨터 공학과이고 한 명은 지구과학과였는데 철학과는 거리가 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말로는 사랑이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격한 감정을 촉발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이야기이고 또 저를 포함해서 그 친구들도 그런 쪽으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두 명이 자꾸 그러한 논리로 저를 밀어붙이니까 저도 반발감이 확 들어서 ‘너네는 그러면 평생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평생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긴 위한 사랑이나 하면서 살아라!’하고 쏘아붙인 게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의 알팍한 지식으로는 그들의 주장에 맞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주장이 꽤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 당시 제가 했던 대답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비록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유전자나 호르몬과는 별개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삶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사랑은 많은 의미를 안겨줍니다. 유전자나 호르몬 같은 이야기는 잠시 치위두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 받으며 살 때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랑은 살아 숨 쉬는 삶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유전자, 호르몬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쓸쓸하고 외로워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서도 그러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해, 배려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퀸의 <under pressure> 라는 노래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Why can't we give love

(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을까?)

Cause love's such an old fashioned word

(왜냐하면 사랑은 구시대적인 단어이기)

퀸은 1981년에 이미 사랑은 너무 구시대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랑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단어일까요? 그래도 퀸은 다음과 같은 가사에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사랑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랑에 희망을 두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love dares you to care for the people on the edge of the night

(그리고 사랑은 밤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돌보도록 만든다)

And love dares you to change our way of caring about ourselves.

(사랑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바꾸게 만든다)

This is our last dance.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춤이다)

일기 같은 것을 접으며

옥승주

2021.07.31, 원뿔의 밑면을 메모하기

늘 양질의 글을 선사해주시는 이웃 분들의 글을 읽고 쓰는 일기. 시간의 연속에 의해서 휘발되기 쉬운 성질의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쓰고 시마이친다. 어느 이웃 분의 글에 의하자면, 바로 그 휘발되기 직전의 아이디어를 붙잡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만이 메모가지시하는 유일한 지시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행위만이 메모라는 특정 행위 양식의 장르성을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일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 이 일기는 어느 대상에서 어느 대상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공중, 바로 그 특정한 시간자체를 드러내는 메모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은 땡. 일기와 메모는 다릅니다. 메모는 짧고 “메모를 위장한” 일기는 늘 메모보다 길다……. so sadit is…….

메모가 "바로 그 공중"의 시간을 지시한다면, 일기는 일종의 생산물로서 어떤 순간적인 시간을 드러내기엔 글러먹었고 다만 어떤 촉발에 의해 체계화된 어떤 생각의 다발, 덩어리 따위를 지시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기의 "체계화"는 언제나 그 장르의 규칙이 되어 우리를 옥죄기 보다는, 언제나 "열정과 가속"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런 열정 넘치는 충동과 구분되지 않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휴식처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메모랑 samesame이라 할 수 있고…….

일기는 정말 지랄 맞는 악취미가 맞는 것 같다. (엥?)

하지만 우리는 늘 악취미를 자랑하고, 그게 또 삶의 재미가 되잖아요? 똥이 중허냐, 재미다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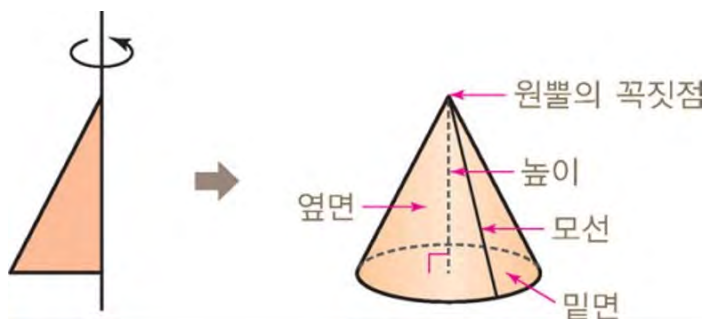
짜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얼마 전 읽었던, 블로그 이웃 이여로의글 중에서 진정 흥미로웠던 구절은 다음의 구절이다. 저 구절이 윗글에서 내가 언급한 원뿔의 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내가 생산해낸 원뿔의 밑면(즉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고 있는 책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본 글의 할당 면적)은 기실 저 원뿔의점(즉 인용된 글이 글쓴이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아이디어)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알아봐야겠지. 그 원뿔의 점이 도대체 뭔데?

“결과적으로 환원의 모든 과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원의 근거지들과 우리 자신이 독립적이 된다는 것(자연인-되기)이 아니라, 구조와 행위에서 행위가 우선적으로 의식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속물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일기쓰기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아마추어리즘은 이렇게 묻는다. 무엇이 먼저인가? 닭 혹은 달걀.

이 가능성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프로젝트다.

(**[출처]** 메모하기, 일기쓰기 - 은둔하거나 가속하거나**작성자** 이여로

<https://blog.naver.com/freely465/222450422224>)”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이런 생각의 다발들이 떠올랐다.

저자의 권위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어떤 이가 역사에 기입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화사이드 철학사이드문학사이드, 그 역사의 무대에 입장할 티켓, 혹은 입장권이 필요할텐데 그 입장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결국 특정한 개념, 형식, 장르 따위의 발명, 혹은 재구성에 대한소유권일 것이다. 쉬운 예는 이것일 것?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철학사에 기입될 수 있었는가? 그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주의적 철학의 전통과는 변별되는 장르적 규칙을 지닌 인문주의적 철학을 창시했기에, 인문주의적 철학을 이루는 개념, 단어, 규칙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했기에 철학사에 기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예. 하이데거?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에서의 로티의 문장을 훑쳐보자. 하이데거는 유럽이라는 철학적-문화적 지형의 근원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어휘(존재 sein)를 찾아내는 작업을 착수했기에 그는 철학사의 지평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는 그 단어에 대한소유권을 지닌 채로, 존재성을 드러내는 시적인 문장 따위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채 철학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진입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때로, 한 명의 역사가는 여실히 한 명의 비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해봄직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만…….)하다. 정전을 구성하려는 비평가의욕망과 역사의 챕터를 구성하는 역사가의 욕망이 결국 양자의 작업을 거대한 형식주의적 비평으로 귀속시키기에 그렇다. 이런 생각 줄기의 씨앗은 영화 평론가gkd가 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결국 gkd가 다 한 것이다. 형식주의적 비평(가)이 어떻게 특정한 형식, 장르적 규칙 따 위의것들을 특정한 한 명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귀속시키는지에 대한 훌륭한 평문은 다음의 링크를 타고 당신들이 직접 확인 해 보시길…….

“ <https://blog.naver.com/rkdejrn8/222138062958> ”

작품론과 형식 비평

작품론은 하나의 작품을 형식에의해 해체한 후, 작가라는 대타자의 이름으로 재구성한다. 작품론은 미적 ... (작성: 영화 평론가 gkd)”

자, 다시 본론으로 앞선 인용문에서 확인할수 있는, "구조와 행위에서 행위가 우선적으로 의식된다"에 대한 문장을 다시금우리의 대가리 속으로 위장 잠입시켜보자.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의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 문장을 조금 비틀어서 이해해보자. 이전의 비평가-역사가들, 다시 말해 "전문가 혹은 제도 지향적인 '코드화 된 욕망을 내재한"(by 이여로)이들은 한 명의 작가에게 소유권을 주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한명의 "통합된 인격체"로서 형성하기 위해서 '행위'보다는 '구조(형식)'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형식주의적 비평은 바로 그러한 선호를 바탕으로 환원이라는 방식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담론을 구성하는 장르적 규칙을, 즉 환원에 의해 드러난 담론 체계의 핵심 급부를 이루는 특정 개념(예술 작품이라면 단연그것은 형식이 될 것이다)을 특정한 이에게 귀속시키고 그를 한명의 통합된 인격체로서, 역사-정전 연속체를 구성하는 인물로서 성립시킨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행위의 최소 단위로 설정하고 그러한 설정을 기본 토대로 메모를 진정 주체성을 형성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작업은 기존의 인격 이해에 대한 통상적인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단어, 개념, 형식 따위를 자아의 동일성과 합치시켜, 그러한 합치를 바탕으로 통합된 인격을 형성하는 작업을 지양하고 주체성을 행위의 차원으로 옮겨 이해하기. 이는 문제의 해소(dissolve)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자'를 형성하는 환원주의-형식주의와 대립하는 반(反)이 아니라, 그 대립의 지평을 해소하는 새로운 문제의 형성이라 봐야 옳을 것이다. 이여로의 말처럼 주체성은 "발생되고 삭제되는 점들의 유동적인 직조"로 이해되는데, 내가 방점을 찍었던 부분은 바로 "직조"라는 단어이다. 직조(하기)라는 행위의 차원에서, 즉 발생될 수도 있고 휘발될 수도 있는 작은 점(메모)들을 '적는', '기록하는', '휘갈기는' 행위 속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분명 메모하기는 그자체가 어떤 목적에 해당할 순 없지만, 어떤 목적을 산출하기는 한다. 그리고 이 목적 산출적 행위는 실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점에서 메모-일기쓰기는 종래의 저자개념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일기의 주체는 저자가 아니다. 일기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목적론적 인간 이해와도 불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형이상학적 목적을 담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인간의 권능에서 주체성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목적의 형성과 그것의 실천이라는 프로세스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지닌 이 독특한 행위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주체성이 발견된다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특정 행위의 목록에 메모하기-일기 쓰기 또한 기입될수 있을 것이다. 이 사물에서 저 사물로 옮김을 가능케 하는 행위에서, 그 사이 경로에서 주체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행위는 하찮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여로 왈,

"따라서 미시적 기법의 하찮음을 무시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가령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수첩이라거나. 어디서든 동기화되는 메모 어플이라거나."

트위터에 140자를 적는 것, 노트의 귀퉁이에 알아볼 수 없는 휘갈긴 글씨를 써내리는 것. 우리는 그런 목록들을 무수히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동이고, 이동의 순간을 드러내는 메모를 작성하는 것.

N태주 종아리 대! 및 자잘한 일기들

1.

김현의 일기를 읽었다. 며칠 전 혜화동에 잠시 들른 김에 유희경 시인의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갔는데, 책장을 쪽 넘겨보다가 시선에 걸려서 충동적으로 샀다. 죽은 사람의 일기를 보는 일은 늘 즐겁다. 죽은 사람을 놀리는 데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기에. 이 책은 투덜대는 김현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나태주 시인을 까내린 게 제일 웃겼다. 김현은 1986년에서 1989년까지 쓰인 이 일기집에서 나태주를 딱 한 번 언급하는데 이 언급에서 n태주를 향한 그의 적대감이 보여서 너무 재밌다. 그는 n태주의 시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진부한 산문 같다." "그러니 시인 회의에 나가 기념품 안 준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아버지.....』). 나만 한 시인에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감정은 시인의 감정이 아니다."

ㅋㅋㅋ 회초리로 때리는 격이다. n태주 종아리 대!

더 웃긴 것은 김현은 이후의 일기에서, 적대감을 바탕으로 어떤 작가를 야단치기에 바쁜 비평가들을 "사제적 권력"의 전형이라고 비웃는다는 것이다. 그는 저 문장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다. 갑자기「도망친 여자」에서 김민희가 정선생으로 분한 권해효에게 말 좀 그만하라고 퍽박준 장면이 떠오른다.



"그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말을 줄이자……. 말을! 말이 무서운 건 언젠가 자신이 내뱉은 말이 발화자를 은연 중에 교수대로 올린다는 것이다. 잡bird에 매혹되어 허수아비를 세우는 짓거리를 그만해야 한다. 이제 그만! being 정선생 stop!

2.

엥 머야, 웹진에서 오한기 소설 나왔네. 9월 1일에 나왔는데, 친구가 없어서 지금 알았다. 아니, 친구는 있는데 오한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다……. 가끔 오한기가 내 삼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 명절날이 더 행복할텐데……. 오한기랑 만두국 먹고 싶다…….

오한기 『펜팔』 인쇄해서 일산 호수공원벤치에 두고 왔다. 누군가 읽었을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3.

제 마음 속 부동의 원픽 김정연이일산에서 산다고요? 마주치면 꼭

싸인 받는다 꼭…….

사는 게 넘 재미가 없어질 때 김정연의 글을 읽고 위안과 긍정과 사랑과 웃음과 행복을 얻는다. 김정연이랑 커피도 먹고 싶음. 김정연이랑 산책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오한기가 어느 소설에서 자기 선배는 조이스 캐롤 오츠랑 부코스키 뿐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그러니까……, 내 선배는 김정연 뿐이다!

4.

박솔희의 『백행을 쓰고 싶다』 읽는중. 원뿔 도형을 사용해서 박솔희의 소설을 읽어내고 싶다.

5.

결작의 조건: 웃길 것.

6.

『광장』에 실린 이상우 단편도 읽었다. 나는 그의 소설이 통독을 요구하지 않아서 정말 좋다. 장면만 얻으면 된다. 이건 내 비밀인데, 이상우 소설은 내 가방 속에 부적처럼 있다.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특히나 부적 같다.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 산책하다가 가끔 꺼내든다. 벤치에 앉아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 놓고 잠깐 읽다가 다시 걷는다.

7.

며칠 전 의지하는 Y형하과의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인상 깊은 말.

"좋은 뺱이는 필요하다. 좋은 뺱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8.

학원 일 하고 나면 진짜 머리가 잠깐비는 것 같고, 한 10분 동안 사람이 멍청해진다. 오늘은 일 끝내고 커피빈 잉글리시 라떼를 계속 생각했다. 그만큼 진이 빠지는 일이다. 근데 동시에 힘이 된다. 기분 좋은 피곤함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고 있다. 이게 바로 좋은 뺱이가 아닐지?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못해도 두 시간은 걸릴 것 같은 과제량을 한 시간 정도 만에 끝내버린다. 이게 맞나? 가능한 일이었나? 열심히 하려는 태도에서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 또 너무 열심히 웃는다. Y형은 이런 학생들을 깔깔 마녀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 같다. 가끔 진이 빠진다.

21.10.08, 금

“그날 이후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死後의 기술이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과장이다.

그렇다고 못 속아주는 분

또한 어엿한 바보이시다.

그러면 한 곡조 팽!

최승자, <그날 이후> 일부 인용.”

1.

블로그에 좀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다. 글쓰기란 참 신기하다. 이걸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의무감을 들게끔 하는 행위인데, 쓰지 않을 때면 이상하게 죄책감 비스무리한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쓴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냐? 이 효율성 제로의 일에 매달리는 자신을 메타적으로 상상할수록 점점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예사일이지만…… 아아아얍!(임플란티드 키드적 발성) 메타와 징징뎀은 이제 그만. 여하튼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침대에 눕기 전에, 아주 잠깐, 진짜 딱 몇 초 간의 시간 동안 '글쓰기'라는 단어가 천장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물론 일과를 다 마칠 만큼 갓생을살고 난 이후면, 글쓰기라는, 한번 노트북을 열었으면 최소 두 세 시간이 지나야 과업이 종료되는 각박한 취미 노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 그렇단 말인 즉슨?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그갓생 살기에 실패했다는 말이다.....
오늘은 무언가 여력이 남았다. 왜지...? 째째하게..... 이러면 글을 써야하
는데! 가뿐하게, 그리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취침해야하는데.....!!!! 취미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웃음만 나온다. 취미까지 노동이 되어야 하
나? 하지만, 최근 정말 흠뻑 빠져 읽고 있는 어느 이웃분의 글에 의하
면(나는 이 이웃의 글을 제본해서 책장의 한 칸에 두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사실 이미 제본을 해놓았다. 멋대로 지은 제목: 삶을 긍정하는
한 가지 방법. 내 친구 왈왈도 이 이웃의 글을 좋아라 하는데, 이 친구
는 그 이웃의 글이 자기 삶의 경전(!)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아름다운
부지불식간의 사랑과 우정...), 우리는 항구적으로 소멸되어가는 시간이
라는 입장 티켓을 구비한 채 타인의 글쓰기에 내재된 시선과 욕망에 접
속하고, 나아가 그에 감응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대가 없이 그
욕망과 시선을 생성하므로 적어도 글쓰기에 있어서 취미와 노동은 환유
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을 지불하고, 각박한 취미 노동에
자신을 투사한다. 그러나 '취미'와 '노동'의 연결은 어디까지나 환유적으
로 이어진다는 걸, 이 연결이 은유는 아니라는 것에 명심할 것.

그리고 요새는 정말 진이 빠진다. 새벽 세 네 시까지 버터도 끄덕 없
던 체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 게 느껴진다. 이게 맞나? 이게 삶이나?
여하튼..... 이 죄책감을 말하기 위해 글쓰기라는 이상한 의무에 대한 "
작가"들의 거창한 글을 끌고 올 필요는 없다. 이 죄책감은 여러분의 내
면속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 여러분이 이 별 거 없는 아마추어 블로그에까지 이웃을 맺게끔
한,

ㄴ. 스크롤을 내려가며 뿔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 속에서 하나 이상의
글을 (거의 강박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쵸?) 얼마간 읽어준

다. 그리고 하트까지 눌러준.....!!!!!!(개중요) 여러분들의 읽기흐릭내면을 딱 한 번 만 돌이켜 보면 된다. 읽기흐릭내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형성한다. "나는 ~을 읽어야 해.", "나는 ~을 써야 해." 등등... 읽기중독내면인데 "나는 ~을 써야 해."라는 문장 형식이 왜 있냐고? 글썄 나아 모르지. 근데 님들도 본능적으로 아시잖아요. 오한기가 그랬는데, 메타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다 읽기중독내면은 쓰기 죄책내면까지 본능적으로 형성한다. 이유야? 나아 모르지 스겔.....

2.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곳이 블로그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 어떻게든 스크롤을 타고 내려가는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자의 내면은 포획할 수 있는 매혹적인 요소를 군데군데 매설해야만한다. 즉, 문체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명심허라.....! 주제와 구성 이전에 문체다.....!(일단 구독하는 블로거들이 모두 문체의 달인들이다. 특히 어떤 분은 진지한 좌파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정말 웃기게 전달하는데 어떻게그렇게 웃기게 쓰는 것인지ㅋㅋ 마스터 클래스 101 열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글을 쓰는 순간 섬광처럼 기억나는 모먼트. Y형은 5년 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내게 언젠가 모든 좋은 글은 폭탄 매립지와 같다고, 그 폭탄이 읽는 순간에 터지느냐 혹은 읽고 난 이후에 터지느냐의 차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던 것 같은데... 물론 내 기억상으로는 이 말은 형이 그 날 과방인가 식당에서인가 지나가는 말로 내게 가볍게 흘린 말에 불과하다. 혹은 내가 완전 잘못 기억하고 있을지도? 근데 그것이 중요허더냐! 어찌 됐든 이 심적 가상이 내 심적 표상의 지평 위에서 스멀스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저 말이 글쓰기의 몸짓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설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는 언제나, 글쓰기라는 효율성 제로의 표명을 통해 가상성의 차원에서
만 머무르던 심적 가상을 모니터의 차원에서 픽셀의 형태로 물화해 실
현하지 않는가? 우리를 흥분시키던 어떤 심적 가상, 아이디어, 독백적인
중얼거림은 앞서 말한 세 네 시간 단위의 각박한 취미 노동을 통해 픽
셀의 형태로, 혹은 종이 표면의 활자의 형태로 실체화된다. 이게 폭탄이
아니면 무엇? 정보음이 울린다.....!!!!



당신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매번폭탄에 맞기 직전의 예감에 휩싸이
며, 결국 그 폭탄을 매번 밟고 만다.....

FUCK! THIS ISGOOD.

어찌 되었든 누군가의 글을 읽고 나서그 사람의 욕망과 시선 따위에
그렇지 이전 정말 "맞는 말(강보원의 인스타 리방에서 참조.....)"이야라
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절로 머리를 위로 치켜세우지 않는가? 뭐 나는
그렇다. "하늘 위로!" "천재!"(문장 웹진에 게재된 오한기 소설 참조.....)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리고 다시금 하는 다짐. 블로그야말로 훌륭한
폭탄 매립지, 남과 북 사이에 있는 지상 최후의 낙원 DMZ라는 사실을

매번 곱씹으며, DMZ를 활주하는 고장난 장난감 굴삭기처럼 저는 계속 글을 씁니다.....(언제 끝나지...? 벌써 한 시간 짜이다)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 전문화된-제도화된 글쓰기 양식에 매몰된 채 선생들만 찾고 있는, 학생 티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소를 머금은 채 FUCK YOU UP을 외쳐야 한다. 그네들이 우리를 독자라는 가면, 가림막을 통해 안전하게 호출한다면, 우리는 그 호출에 최대한 저속하고 유쾌하게 답변하겠다. 이센스가 언젠가 자신의 다크에서, 자신의 노래가 길거리에서 들리는 말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대중들의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자신의 말을 구별짓지 말 것. 그냥 말을 건다고 생각하자. 한 명의 대중으로서, 한 명의 개돼지로서 블로그라는 플랫폼에서 장장 두 시간 정도가 투입되는, 누가 읽을 지 안 읽을 지도 모르는 취미 노동을 항구적으로, 그리고 항상적으로 생산해야만 한다. 인용-논증-인용-논증의 연쇄 고리가 장장 24페이지 정도 이어지는 사망 직전 문예지의 콘크리트 연쇄 고리에 노란색 장난감 굴삭기를 가져다 대야만 한다. 유머와 유쾌를 방패로 핵심은 장난감 굴삭기이다. 콘크리트 도배 작업장에 장난감 굴삭기를 갖다 대는 어느 정신 나간 노동자의 쿨함을 생각할 것. 혹은 반대로, 놀자고 하는 판에 우울과 진지를 머금은 채 자신의 몸집의 세 배가량 되는 진짜 굴삭기를 가져오는 것만큼 멍청한 짓거리도 없다. 그건 '비'웃음만 야기하는 종류의 DUMB FUCK한 행위라고 생각. 문제는 무엇이나? 문제는 문제이다. 뭐? 문제는 문제라고???

2021.10.22, ENTHUSIASM



0. 주의! 이 글은 허수아비에 사로잡혀 부리로애먼 데를 쪼아대기에 바쁜 젊은 까마귀의 정념 발사체입니다. 얼치기의 미숙성 딜리버리 세트가 싫으신분들은 잠시 눈을 감으시길. (젊은 까마귀라는 비유는 친애하는 Y형의 글에서 따옴을 밝힙니다.)

1. 그건 그렇고, 열광, 참 좋은 말이다. 곱씹을수록 그렇다.

2. 매력적인 글쓰기는 저기에 있는 것에 당도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글쓰기이다('저기'는 발화자와 청자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을 지시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는 지시대명사라는 것을 명심하자). 저기에 있는 것에 당도할 수 있음이 진정 흥미로운 것은, 나로 하여금 저기에 있는 것을 감각할수 있게 하는 순간은 순전한 도박사의 충동으

로서 추동되기에 그렇다. 나는 앞서 감각이라는 말을 썼다. 나에게 감각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어떤 특정한 예술 작품을 접하고 난 이후 감각되고 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노름꾼의 충동과도 같은 심리적인 촉발, 즉 무모한 도박을 수행하게끔 하는 바로 그 충동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당신이 도박사인가? 무모한 베팅을 걸어라. 당신이 작가에 해당하는가? 아이디어를 지닌 채 닥치고 노트북 앞에 앉아라.

왜 이러한 독특한 지시를 수행하는 글 따위에서 매력을 느끼는가? 어떤 대상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글쓰기는 독자의 시선 또한 작가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과동일한 곳에 머무를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 요청은 작가와 독자의 시선이 동일하게 교차하는 저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보자는 권유와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오로지 협업만이 중시되는 요청을 작가가 독자에게 제시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요청에 온갖 호들갑을 떨며 수긍하거나, 부정한다. 권유를 통해 지시된, '저기에 위치한 지향점이 나의 마음에 드는가? 나는 카페에서 만난 친구에게, 점점 식어가는 커피를 안타깝게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지향점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를 전파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부정의 케이스라면 간단하다. 우리는 이 작가를 쓰레기라고 치부하고 그 글쓰기를 읽는데 쓰인 나의 시간이 안타깝워 욕지거리를 내뱉을 것이다). 만약 그 전파에 나의 친구가 감응했다면 동일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갈 동료의 숫자가 $n+1$ 이 된다.

이 $n+1$ 의 경험. 그 경험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스포츠를 즐기기에 있어서 왜 팬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인가? 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covid-19를 무시하면서까지 경기장의 관중석을 가득 채우려는 것인가? 말하자면, 이 함께함의 경험, 열광

의 분유라는 형식의 대중적 수행만이 스포츠라는 게임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게임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 전략을 숙지한 숙련된 선수의 시야와 더불어 언제나 대중의 형태로만 등장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선수를 향해 저속한 욕을 내뱉는, 때로는 열광에 가까운 찬사를 보내는 때까지 관중의 시야가 동일한 곳을 바라볼 때에만 스포츠는 탄생한다. 선수와 관중의 시선이 동일한 곳을 지향하지 않는 필드는 실패한 필드이다. 그러한 필드는 지속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저기를 지시하는 글쓰기는 스포츠가 제공하는 경험의 형식(선수의 숙련된 플레이가 지향하는 곳과, 특정한 팀과 선수의 수행 과제를 열렬히 응원하는 대중의 몸짓이 지향하는 곳이 일치하는)과 유사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글쓰기라는 필드에 내가 계속해서 '관중'의 모습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글쓰기를 '내밀한' 개인적인 쾌락 따위에 연결짓지 마라. 진정 내밀한 쾌락이 있는가? 대가리 붙잡고 딱 한번만 반추해보자. 어떤 글을 읽고 당신의 내면속에서 '내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특정 종류의 심리적 쾌락은 실상 그 글에 긍정적 반응을 표하는 다른 대중, 혹은 동료들의 존재함, 또는 그 존재함에 대한 상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것이다.

a: "독서는 외로울 수 있어서 즐거워요..." a' : "독서를 하면 잠시 나의 생활을 잊을 수 있어서..." a' : ...

어우, 제발 그만!

당신의 그 외로움에 동참하는 여럿 인간들이 있기에 당신의 그 외로움이 재미있는 것이겠지. 제발 글쓰기를 수행하는 작가의 이미지를 마냥 내향적이고, 마냥 선하고 마냥 착한 내향적 인간으로 고정시켜 놓지

좀 마라. 요 근래 출판사들의 이러한 마케팅(어딘가 내향적이지만 동시에 따스하고 안온한 성정을 가진 인간형을 미리 주조해놓고 작가들이 틀 안에 갈아 넣는 듯한)에 환멸이 난다. 이견을 표출하고, 자신의 의견에 함께 할 동료들을 모집하는데 안달이 난 선동자의 이미지를 보고 싶다. 나는 요 근래 당파성을 지향하는 문학, 혹은 민족주의적 이념을 지향하는 글쓰기의 형식이 대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로지 그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에만 이들은 어떻게 대중에게 뿌리내림의 형식을 제공했는가? 문화는 어떻게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적대자들의 증오를 열광이라는 형식으로 치환하는가? 모더니즘의 새로움에 대한 강박? 문화 경제의 논리? 여하튼, 점점 중요한 것은 열광이고 이 열광이 아니면 글쓰기이든 뭐든 뭣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점차 이 열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형식의 글쓰기가 '거기를 지시하는 글쓰기가 아닐까하는 생각만이 들고 있다. 이런 글쓰기의 매력을 당신들 또한 인지했다면 당신들은 위대한 어떤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꿀깍을 떠는 글쓰기의 양식이 왜 매력이 없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것이다. 여기를 강조하는 글쓰기가 매력 없는 이유는 제도에 밀착하여 완전히 관료제적 공무원이 되어버린 비평가들의 글쓰기 양식을 아주 조금만 관찰 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들이 외치는 무수한 '여기의 변종들: 아카데미즘으로 범벅된 제도 속에서 자기 위로적인 학술적 글쓰기를 재생산하는 선생-학생 공동체들의 문화 생산물은 나의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할 뿐이다.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은 단지 거기에 있음으로 나에게 단 하나의 흥미조차 유발하지 못한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당신만의 소유일 뿐이다. 거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나의 소유는 아니다.

2021.10.29, 하나의 원뿔



짧은 메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곧 배반된다.

요새 원뿔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원뿔이라는 도형이 내게 선사하는 어떤 심적 실체에 대해서. 대가리에서 만들어진 어떤 전기 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뿔의 밑면과 높이선과 꼭짓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환기를 위해 잠시 의도적으로 셋길을파보자. 셋길의 종착지는 2020년의 내 개인적인 체험이다. 어느 여름날, 나는 김유림이 제시한 『세 개 이상의 모형』을 받아들였다. 그와 동시에 종종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모형 주위를 걸어다니는 김유림 시 속 화자의 그 걸어다님, 그 걸어다님의 몸짓에 매료되곤 했다. 어찌 되어서 나는 표면 상에 드러난 화자

의 시선의 이동을 걸어다니는 몸짓이라고 상상, 혹은 착각하게 된 걸까? 그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 이 체험은 나의 2020년도의 체험이고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움직임이다.

여하튼 세 개 이상의 도형을 읽고나는 현실을 버티기 위한 나만의 도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의 꼭짓점이 필요했고, 나는 그 자리에 어떤 대상을 넣기보다는 ‘저곳’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삽입했다. 그렇기에 나의 시선은 하늘로 고정되었고, 그 바라봄의 가운데 여러 훌륭한 이웃들의 글과 일기 비슷한 것들을 읽고 그 독서 체험으로부터 어떤 ‘좋은’을 추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꼭짓점(하늘)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어떤 높이선이 형성되었고, 나는 이 높이선의 거리 수치를 열광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여담을.

친구는 언젠가 어느 편지에서 나 자신을국적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어떤 작품을 보고 쉽게 열광해서 그렇다나 뭐라나……(그와 동시에 어떤 작품을 보고는 무시무시짱무섭지 저주를 일삼는……) 여하튼 친구의 그러한 언명이 나의 지칭과 관련된 역사 경로로부터 어느 잔가지의 생성시키는걸 느꼈다. 나는 그 잔가지를 애써 부여잡고 상상 속의 아르헨티나(『정오의 희망곡』)에서, 상상 속의 베트남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맞으며, 눈을 약간 찡그린 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어느 사람이 된다. 그 잔가지의 촉감을 계속해서 상상한다(해야만 한다).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면 동시에 저곳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 길 바닥에만 종속되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아둔한 자이다. 병수(竝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상상할 것. 햇것을 보는 사람이 되면 되지.

“기주봉: 넌 진짜 미친 놈이구나?”

그 긴장을 밀고 나가는 인파이터가 되면 된다. 오한기의 흥학을, 오한

기의 노파를, 오한기의 윈체스터를 떠올린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물 아래 빠져 죽어있는 어느 노파 위에서 발발한 총성의 소리와 그 소리가 만들어낸 어떤 물결에 대해. 이 물결은 예술이 내게 선사할 수 있는 모종의 떨림에 대한 비유에 다름 아니고, 나는 이런 떨림을 우직하게 씹어 먹어나가며 생활로 예술을, 예술로 생활을 버틴다(바흐친 참조……)그리고 나는 그 꼭짓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썼고, 그 써나감의 과정에서 파생된 어떤 아마추어적인 작업물의 영역 자체를 밀면이라고 부르게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글에 쓰인 모든 글들은 바로 저 세 개 이상의 도형을 읽고 난 이후만들어 낸 밀면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 2020년 초반기에 블로그를 시작하고 이후 만나게 된 몇 십 명의 이웃을 상상하며 글을 쓰게된 계기는 김유림이 만들어 낸 세 개 이상의 도형이었으니…

여하튼 나는 이런 글쓰기 행위를, 일정한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순환시켰고 그 결과… 그 도형의 이름은 원뿔이 되었다. 이유는 간단. 원뿔은 직각삼각형의 원운동으로 인해 탄생한 도형이기 때문에. 저곳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겨난 열광과그 열광을 연료 삼아 순환적으로 계속되는 글쓰기 형식은 직각삼각형을 원운동시켜 형성된 원뿔의 제작 과정과 닮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제 나는 도형을 쥐었다.

어디로 나아가지 이제는?

사랑

이윤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고 있다.

아마도,

사랑스러웠던 것 또한,

사랑스러울 것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사랑해야만 할까? 이 시처럼 생긴 무언가는 고등학생 때, 한참 봄이 물들어갈 무렵에 적은 것을 이리저리 고친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람’이라고 불렀었는데.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나니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것’이라고 슬쩍 고쳐 적었습니다.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어떤 것을 열렬하게 사랑해보면, 사랑하고 싶다는 욕심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사랑하고, 맛있는 떡을 팔던 떡집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과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지’라며 그리워하고 닮고 싶어 하면서 과거 사랑스러웠던 것에게 사랑을 바칩니다. 그리고 미래에 사랑을 보내는 짓도 하곤 하죠. ‘이걸 하면 이렇게 바뀔 거야, 성장할 거야. 정말 기대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스러울 것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 않나요?

사랑하고 있기에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해야 하기에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건 어릴 때의 제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기에, 그저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서 편안히 앉으려고 합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가 어떤 걸 사랑하는지... 얼마나 넓은 세상에 사랑을 던지고 있었는지 새삼스러운 감정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같은 생각을 하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랑, 실존과 본질 사이

조승우

1. 들어가며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l'homme est condamné à être libre*”
-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인간은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떠한 방향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우리는 사랑할 자유를 가졌고, 사랑의 방법과 형식을 선택할 자유 또한 가졌다. 우리는 타자와 부대끼며 살아간다. 서로가 생각을 나누고, 쾌와 불쾌를 공유하며, 사랑을 하며 관계를 맺는다. 즉, 세계는 개인의 자유 의지발산의 장이 되며, 그러한 자유 의지가 교차하는 지점 속에 관계가 건설된다. 사랑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자유 의지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가?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본문에서는 위 질문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관점을 통해 대답해보고자 한다. 사랑의 존재 이유를 자유와 선택 개념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실존과 본질 개념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인간의 실존과 본질에서의 사랑의 위치와 역할을 사르트르의 관점을 이용한 본인의 해석을 통해 나타낼 것이다.

2-1. 자유와 선택, 그리고 사랑

사랑은 인간이 행사하는 자유에 의한 선택으로 인해 생겨난다. 개인이 자유 의지를 발산하며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결과물이 되기도

하고, 선택이 어긋나 단방향적 사랑으로 남게 되는 잔존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랑은 선택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형의 사랑이라도 이 명제는 성립한다.

한편 사르트르는 자유는 실천하는 한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사랑을 포함한 인간의 감정은 오직 선택에 의한 행위로만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감정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개념인 것이다. 이는 우리의 통념과 다소 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느낀 감정(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그녀를 대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일지라도 행위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사랑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그의 관점으로는 사랑이 개인의 관념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될 때 사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 또한 본인이 향유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도록 최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 가족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고, 연인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며, 사랑하는 친구들과 순간의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한다. 만나본 적 없는 故 신해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와 시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마음의 울림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무 위에 눈이 안착하는 정경을 보고 훗훗함을 느낀다. 이것들처럼 본인은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을 일상적으로 거듭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그리고 인간은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것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을 내린다.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자, 사랑하는 방법이다.

2-2. 실존과 본질, 그 사이의 사랑

이렇게 인간은 일평생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게 될 것을 선택하며 그들의 본질을 만들어 나아간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선택하든 간접적으로 선택하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위한 선택을 반복한다. 물론 모든 선택이 자신의 본질 형성에 기여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한다.

인간은 본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존재이다. 주어진 본질이란 없으며, 만들어 나아가는 개념이다. 사르트르는 조금 더 직관적인 전달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붙인다. 우선 제작된 사물, 예컨대 종이 자르는 칼 같은 대상을 고려해보자. 이 사물은 한 개념을 통해 영감 받은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종이 자르는 칼'이라는 실체에 선행하는 제작법 또는 생산기술 등을 참고하여 그 실체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결국 이 사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을 가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에 있어서는 본질-사물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정의할 수 있게 하는 제작법과 기술이 실존에 앞서는 셈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의 한 개별체를 그대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작법과 기술이 따로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제작된 순간부터 그것의 속성, 즉 본질이 정해져있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태어난 후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실존의 연장선으로 생각된다.** 사랑과 같이 선택으로 형성된 모든 특성이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데,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제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성립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

량은 인간 본질의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급진적이고 순수한 자유 의지를 통해 사랑과 같은 모든 특성을 만들며 인간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모든 가능성이 개방된 세계에서 순수한 자유 의지 발현. 그렇게 사랑은 순수한 자유를 통해 구현 가능하다.

- 여담 -

글을 쓰다 문득, 실존주의의 현신인 사르트르는 어떤 사랑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역시 사르트르의 사랑은 흥미로웠다. 사르트르는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시몽드 보부아르(1908~1986)와 독특한 형태의 사랑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두 조건을 내걸고 계약 결혼을 맺는다.

1)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허락함. 2)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것.

이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인가? 이 둘은 우리의 K-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흥미롭고, 사르트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와 ‘주체성’이 두각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관계는 각자의 사랑에 대한 자유를 극대화하여 보장함을 근간으로 삼는 것 같다. 그럼에도 둘은 오래 사랑했다. 둘은 서로의 말과 철학을 매개로 완전함에 가까운 사랑이 서로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틀 밖의 사랑을 본인이 겪어볼 가능성-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다.은 회박하겠지만,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사랑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 이외의 것에는 각자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꽤나 매력적인 관계의 형태라고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사랑의 확신’을 느끼고,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가? 앞으로도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사

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계기였다. 아직까지는 본인에게 **사랑의 확신을 단언**-본인에게는 무척 엄중한 개념이다-할 수 있는 존재는 가족 외에는 없지만, 모르는 일이다.

3. 마치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랑은 우리의 본질을 형성하고, 바꿀 수 있다. 적어도 본인은 생이 끝났을 때, 즉 본질이 굳어졌을 때, 보다 멋진 본질이 되어있기를 원한다. 사랑은 이를 돕는다. 내가 선택한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일 때, 나의 삶 또한 아름답게 변한다. 따라서 아름다운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의 본질 형성을 견인한다. 그러니 열을 다해 사랑하자. 사랑을 위한 선택을 내리고, 최선의 사랑을 찾자. 우리는 최선의 사랑을 위한 선택을 내릴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았기에-

참고문헌

장 폴 사르트르 저, 「실존주의는휴머니즘이다*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 박정태역, 이학사, 2007

장 폴 사르트르 저, 「존재와무*L'etre et le Neant*」, 정소정 역, 동서문화사, 2009

사랑과 우정 사이

최민수

우리는 사랑한다.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조금이라도 한없이라도, 여러 대상이든 한 대상이든 사랑은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행해진다. 또, 사랑은 대인관계의 기반이 되기도, 결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유를 찾을 수도, 사랑을 이유로 다른 일을 해낼 수도 있다. 사랑 없는 삶이 가능이나 할까?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 사랑의 형태가 상식적으로 그러하듯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점에서,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일 것이다. 그 대상 또한 무한하다. 연인, 부모, 자식, 애완동물, 친구, 예술, 학문 등 우리는 마음이 향한다면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는 한 편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이에 대해서는 감정, 행위, 관계로 간단히 나눠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느끼고(감정), 대상을 사랑하고(행위), 그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이 형태가 우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정이야말로 사랑의 일부가 아닐까? 연인과 친구의 차이에 대하여 그 이유들과 증거를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대개 친구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인과 모두 할 수 있지만, 연인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친구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단순히 감정의 경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 그렇다. 따라서 우정은 사랑의 한 갈래로서 분명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정하지 않는다. 즉, 친구를 우정의 형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정하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정

은 보통 어떤 관계나 느끼는 감정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상대/대상은 있지만 방향성을 갖거나 행위로서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우정은 둘 이상의 사람이 친밀함을 나누고 정이 오고 가는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이 일방적으로 가능할 때, 우정은 상호성을 필수로 가지기 때문에 ‘우정한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짝사랑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말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쉬운 말이다. 짝우정은 어떠한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쓰면서 처음 떠올려보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일방적인 우정으로 볼 수는 없을까? 여전히 일방적인 우정이라 함은 어색하지만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둘 중 한 쪽에서만 상대와 친해지길 원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짝우정을 하는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짝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개념이나 사용에 대해 새삼스럽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정이 사랑의 한 갈래로 이어져 만들어지는 어떤 관계 또는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결국 ‘짝우정’이라고 앞서 이해해본 상태는 짝사랑이어야 한다. 일상적인 표현에서 우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행위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짝사랑이라는 말도 짝우정 대신 쓸 수 있는 말이라기엔, 이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맥락이 확고하고, 이 경우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 친구를, 연인을,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일지도 모른다. 모든 관계에는 사랑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유가 철학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내가 이 글에서 말하려는 사랑의 넓은 의미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하는 사랑임에도 새삼스럽게 바라보자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잘 알아야 행

하는 것에도 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각자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일상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관계에 더 능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환경이 돈 벌어다 준다

김아연

인터넷에서 코에 빨대가 꽂힌 채로 수영하는 거북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이 쓴 빨대가 바다로 흘러 한 거북이의 삶을 괴롭혔다.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빨대가 단순히 거북이의 코에 꽂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일회용품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파괴한다. 환경 파괴의 문제는 이제 많은 이들이 경계하고 있다. 이런 사회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업 ‘스타벅스’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스타벅스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스타벅스의 정책으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은 다수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년에 스타벅스가 내는 MD의 개수를 아는가? MD란 Merchandise를 줄인 용어로,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상품을 뜻한다. 스타벅스는 텀블러, 머그잔, 인형, 스노우볼 같은 굿즈에 스타벅스만의 디자인을 넣어 한정판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정판 제품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MD를 줄을 서가며 구매하고 있다. 스타벅스 2020년 썸머 MD의 총개수는 25개이다. 즉, 약 25개의 이쁜 플라스틱을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판매 중이다. 이는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린다고 지적할 수 있다. MD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스타벅스는 올해 9월, 일회용 컵보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무료로 한정판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다회용 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려 1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즉,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컵이 판매되었다. 하지만 이 리유저블 컵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권고 재사용 횟수가 20여 회에 불과하다. 스타벅스 측에서 제품 특성상 가급적 20여 회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스타벅스의 행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려 오히려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

기업 ‘애플’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애플은 공식 사이트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며 애플이 환경보호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중 ‘환경을 위한 덜어내기’ 부분은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원 어댑터’를 통한 탄소 감소 효과에 관해 설명한다. 애플 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원래는 제품 구성에 포함되어있었던 전원 어댑터를 최근부터 제품 구성에서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전원 어댑터 제작에 플라스틱, 구리, 주석, 아연 등 소재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원 어댑터를 제품 구성에서 제거하여 지구로부터 채굴해야 하는 소재의 양을 상당수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제조 공정 및 운송 시 배출되는 탄소의 양도 그만큼 절감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품 구성에서 전원 어댑터를 제거하면서 새로 애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따로 전원 어댑터를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결국 제작에 들어가는 소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또 먼저 구매한 애플 제품은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지만, 새로 전원 어댑터를 구매하는 바람에 운송 과정은 늘어난다. 결국 운송 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제공했던 전원 어댑터와 충전할 제품을 어댑터와 연결해주는 케이블을 제품 구성에 포함했다. 하지만 어댑터를 제품 구성에서 제거함과 동시에 애플은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의 디자인을 바꿨다. 그 케이블은 애플이 기존 제공했던 전원 어댑터와 호환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의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전원 어댑터를 사게 된다. 애플은 환경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쪽에 가깝다.

최근 환경 파괴는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들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환경을 오로지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 기업의 무조건적인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움직임이다. 기업들은 환경을 마케팅의 일종으로 생각하기보다 환경보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보다 기업들의 제대로 된 환경보호 실천이 필요하다.

강릉 기행문 : 속세를 떠납니다

박성진

친한 후배 O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이 강릉 영화제에 참석해 호텔에 숙박하기로 했는데, 더블 트윈 방이라 너무 큰 방이고, 자신은 거의 밤늦게까지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니, 내가 와서 쉬어하면 어떠냐는 거였다.

확실히 나쁜 제안은 아니었다. 다만 강릉이라... 최근 학술제 준비 때 매 지쳐있던 터라, 태백산맥을 건너 동해에 닿을 기력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한번 빠긴 했지만, "부르면 간다"를 인생 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어서, 한 번 가보기로 했다. 오히려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을지도?

떠나는 당일에도, 바로 직전까지 학술제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부랴부랴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서울역. 내가 아는 가장 혼란스러운 곳 중 하나인데. 혼잡한 인파에 지친 외중에, 흡연장에서 어깨빵을 하고 고함을 치는 할아버지를 보며 담배를 정말 끊어버려야겠다고 잠시 생각하기도 했다.

여튼 서울을 떠난다. KTX에 타고 인스타 스토리에 "속세를 떠납니다" 하고 올렸다. 올리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웬지 이 다음에 강릉에 가면 "속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리나 하고 있을 거 같았다. 이런 식상하다 못해 구태 의연한 냉소적 구조주의. 건강하지 못한 웃음은 슬픔일 뿐이니, 좋지 않다. 이런 잡생각 속에 이어폰을 꽂고 적당한 음악을 틀었다. 구체적으로 ほんっぴいえんどの <風街ろまん>(1971)과 Wilco의 <Yankee Hotel Foxtrot>(2001)을 들었다. 나른한 포크록과 함께 짙어지는 창밖의 녹음을 보니 이제사 여행 비슷한걸 가는구나 생각

이 들었다.

아아서 2시간을 자다 깨길 반복하며 피곤해진 몸과 함께 강릉에 도착했다. 나를 가장 먼저 맞아준건 수호랑과 반다비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본 듯 혼자 인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 이제 어디를 갈까. 우선, 숙소에 가서 짐을 풀자. 폰으로 지도를 켜고 호텔까지의 방향을 찍었다. 가는 도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몇개 건너야 했다. 서울 촌놈으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만큼 불편한게 없다. 차량과의 목숨을 건 눈치싸움을 한 끝에 숙소에 왔다. 시간은 벌써 5시 무렵. 내가 고속철도를 타고 열심히 동쪽으로 가고 있을 동안, 해는 열심히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

숙소에서 바다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길이 나 있었다. 거리는 대략 4.7KM. 막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걸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멀진 않다. 낯선 도시와 가까워질 겸, 나는 바다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북게 익어가는 하늘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다가도, 너무 빨리 지고 있는 해가 이내 무서워졌다. 여기까지 와서 바다도 제대로 못보고 가면 어쩐담. 송정동이라고 적힌 돌을 봤을 무렵부터는 뛰었다. 이윽고, 울창한 소나무 숲에 들어갔고, 수상해 보이는 석불상이 보였다. 순간 영화 <랑중>이 생각나서 굉장히 무서웠다.

드디어 저기 너머에 수평선이 보인다. 오오?! 소나무 숲을 박차고 뛰어 해변으로 갔다.

그 날은 유독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뭔가 거대한 생명력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아 이게 송고미라는 건가" 예술철학 수업의 과제와 내용을 골머리를 앓던 머리에 직관적으로 박힌 풍경이었다.

모레 사장에 발이 푹푹 꺼져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동안 해변에 있었다. 이제 진짜 날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까지도 한 끼도 못먹은 상태였다. 대한민국이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허가제를 하네 마

네 한다던데, 설마 주변에 음식점이 하나도 없겠냐는 생각으로 일단 무작정 걸었다. 근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소나무 숲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른 공포심을 갖고, 일단 차가 뽕뽕 달리는 대로변으로 나왔다. 북극곰 하나가 지붕에 올려져 있는게 보인다. "저게 뭐지? 또 카페 같은 건가?" 폰을 켜서 확인해보니 수제버거 집이었다! 강릉까지 가서 수제버거라니. 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이미 배가 너무너무 고했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는 없었다.

한 5분 정도 기다려 자리에 앉고, 26분 정도 기다린 끝에 버거가 나왔다. 계눈 감추듯 버거를 먹어치우고, 나름대로 평가한다. "음... 맛은 있었는데, 딱 그 가격만한 맛이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버거의 번이 맛있었다는 것, 버거 안의 수제 피클이 맛있었다는게 생각난다.

바다도 보고, 밥도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택시를 잡을까 했으나, 한 대를 눈앞에서 놓치고 난 후로 택시가 그림자도 안 보여서, 다시 걸어가기로 했다. 걸어가면서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다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힐링 되는 시간이었다. 걸어가면서는 The Alan Parsons Project의 'Shadow of a Lonely Man'이란 곡에 꽂혀서 주구장창 들었다.

그날 총 2.3만보를 걸었는데, 역시 다리가 아프더라. 숙소에 밤늦게 들어온 O씨와 같이 배달도 시켜 먹고, 시덥지 않은 잡담도 나눈다. 숙소에서도 역시 학술제 일을 좀 하고, 잠에 드니 아침이 됐다. 가는 길에 요즘 유명하다는 장칼국수를 먹고 KTX에 탔다.

숙소에서 모기 때문에 잘 못잔 탓인지, KTX에서 눈을 감았다 뜨니 금방 서울에 도착해 있었다.

결국 이 여행을 왜 떠났더라? 아 속세를 떠난다고 하면서 갔지. 돌이켜보면 모든게 순식간이라 시간 감각이 왜곡 되곤 한다. 하여튼, 속세를 잘 떠났는가? 속세를 떠나서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오디세이아 같은 건

가. 아님 역시 속세를 떠날 순 없는 것일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아마 나는 속세를 떠나면서도 떠나는데 실패했고, 속세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속세에 갇혀있지 못 했던거 같다. 배중률을 어긴다는게 가장 비현실적인 리얼리티 아니던가? 나는 그런 곳에서 자유를 느끼곤하는 거 같다. 아닐 수도.

battery love

권순용

나도 배터리가 표시 됐음 좋겠다
내 아이폰은 충전기만 꽂아두면 다 충전된다
나는..
어떤 날엔 잠만 자고 일어나도 다 충전된 기분이다
다 이길 것 같고
어떤 날엔 잠을 잘 자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된다
그래도 안되는 날에는 맥주 한잔에 영화를 보고
비가 오면 더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서
저전력 모드에서 방전이 될 때까지
음수에 음수를 곱해
산산조각 나고 싶을 때까지..

지금은 빨래와 뒤섞인 베란다에서
아이코스를 피우고 있다
아이코스의 배터리가 닳는 것을 보면서
빨래들과 빌 에반스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천재 피아니스트가 되는 상상을 한다
흑백사진 속 빌 에반스처럼 등을 굽어 보면서..
오래된 병이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 병이 오랫동안 나를 살게 했다

‘사랑’에 대한 소고들

익명

1.

우리는 살다가 한 번 짚은 사랑하게 된다. 어쩌면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 종족을 보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관계를 가지는 동물의 그것과는 달리 -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향유하는 ‘나’의 좋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스스로의 좋음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련의 감정을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까지 볼 때, 인간의 사랑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 이성에 근거한 감성으로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상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다른 감정들과는 달리 사랑은 정의 내리기 힘든 감정인 것처럼 보인다. 흔히 대표적인 7가지의 감정이라 불리는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중에서 사랑이라 불리는 ‘愛’는 다른 6가지 감정들을 포함할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사랑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정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대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이 사랑받는 대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주위의 누군가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자

연스레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주목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어떤 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의 마음이 동하였을 때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짐’은 맺어짐, 다시 말해 관계의 의미이다. 이렇듯 현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연애’ 혹은 ‘결혼’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부분을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던 관계는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타자 간의 연결을 의미하며, 속박됨으로써 정당화된다. 자유로운 의지를 근거로 한 인간 행위인 사랑이 속박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현대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하고, 연인이라는 관계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대상은 언제나 한 명일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예부터 일부일처제라는,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한 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관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로 현대에서는 한 명의 성별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성별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야만 정당화된다고 여겨진다. 이 역시 제도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서로 다른 성별을 사랑하는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 이런 사랑에 대한 이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로, 정말 사랑은 ‘관계’로 귀결될 때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산출하는가? 이 물음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로, 과연 속박된 사랑만이 정당화되고 옳은 것인가? ‘사랑은 일부일처제에 저주받았다.’라는 캐나다 격언이 말하듯 우리는 1:1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혹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는 비-이성애의 다양한 성애 형태는 옳은 것인가? 또한, 결국 ‘성애’의 개념 또한 성적 지향성에 따라 추구되는 ‘관계’라는 전제 아래에서 발생하

지 않았는가? 나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 소고를 글로 적는다. 그를 위해 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향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트들을 통해 이해하고자 할 것이며, 그 사랑의 본질이 ‘관계’에 속박될 때에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노력할 것이다.

2.

어떠한 존재에는 본질과 함께 본질을 감싸는 속성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사랑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현대의 우리에게도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속성은 바로 ‘관계’이다.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타자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쌍방적일 때 사랑에서의 ‘관계’는 성립하며,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학문적으로도 많은 철학자들이 ‘관계’라는 사랑의 속성에 주목하며, 사랑이 있기 위해 관계라는 속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그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사랑의 전제가 되는 관계에 대해서였다.

사르트르의 철학적 고찰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 말하는 ‘너를 사랑해’에 함축된 의미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 의하면 ‘사랑받는 자’는 ‘선택된 자’이며, 역으로 말하면 선택한 타자가 그 선택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개인의 사랑은 ‘관계’를 지향함이며, 이는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라캉 역시 『세미나』 8권에서 사랑이 발생하는 이유를 ‘욕망과 대상 사이의 불일치’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따라서 관계의 성립은 사랑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관계가 성립된 이후로 사랑은 점점 더 커진다. 점점 무뎌져가는 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처음처럼 열렬히 사랑해주기를 바라면서 사랑은 점점 타오른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헤겔은 사랑하는 주체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타자의 자유를 설정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저서 『법철학 강요』에서 보면, ‘사랑은 주체와 타자가 관계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하면서 사랑은 관계에 뒷받침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그 하나가 되는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끌어왔다. 그러나 관계라는 사랑의 가장 주요한 속성을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바디우는 『조건들』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랑은 둘의 경험이다.’라고 언급하며 역시 관계가 사랑을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헤겔의 그것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전혀 띠지 않는 서로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관계의 시작은 타자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계 성립 이후에는 ‘너와 나’라는 시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바디우는 주장하였다. 이 지점에서 바디우가 관계를 사랑을 발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요소로만 보지 않고, ‘너와 나’라는 둘만의 관계가 사랑이 전개되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여기까지 사랑에 대해 논했던 철학자들의 논의는 얼추 살펴보

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되는 사랑에 있어서의 ‘관계’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앞서 서론에서 어느 정도는 언급하였지만,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야 한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은 관습적이다.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 사회화되는 것의 수단은 교육이며, 그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잘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다시 말해 그 동안 사회를 이루어왔고 -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더라도 - 어느 정도는 유지시켜왔던 관습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가령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예부터 뿌리박힌 문화에 따라서 사랑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 정도로만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해에는 성별 등에 있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랑의 정의를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다.

또한 법이나 제도 등의 강제적인 요소도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범위를 제한시킨다. 가령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 같은 경우,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은연중에 사랑의 조건을 ‘양성’, 즉 ‘남녀’로 규정시킨다. 물론 혼인과 사랑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은 남녀의 관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은 혼인으로 직결된다.’라는 지극히 관습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관습적이라는 말에는 어떠한 가치판단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랑에 있어서의 관계가 관습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

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러한 관습적 이해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가능성을 알아간 듯하다. 사실 관계로서 이해되는 사랑이 그렇게 좋은 이해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자연스러움에 취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던 것이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부터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도록 하겠다.

3.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에 따르면 사랑은 지극히 관계에 의존하고 제도나 관습에 의해 제한되는 수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명백히 주어졌던 사실 하나를 간과했기에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존재에는 본질과 함께 본질을 감싸는 속성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렇기에 사랑을 이루는 속성 중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관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실 앞선 논의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 어떠한 부연설명을 하든 간에, ‘사랑은 관계이다.’라는 명제 하나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남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해는 현대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가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잊고 있던 것이 아닌가? 관계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속성에 불과하며, 본질은 될 수 없다. 단순히 속성에 갇혀서만 사랑을 이해한다면 결국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더해서, 만일

사랑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정당화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랑의 형태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탄압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 우선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다음 텍스트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 사실 사랑은 당신 생각처럼 아름다운 것에 대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네. “그게 아니면 뭘니까?”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낱음과 출산에 대한 것이지요.” “뭘, 좋습니다.” 내가 말했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이 왜 낱음에 대한 것일까요? 낱음은 가사자에게 있는 영속적이고 불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합의한 대로 사랑이란 좋은 것이 늘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과 더불어 불사를 욕망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로부터 사랑이 불사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지요.”

『향연』 206b1-207a4 中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욱 엄밀해지기 위해서는 속성에 불과한 관계를 사랑의 충분조건으로 전제하고 들어가기 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 둘이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닌, ‘나는 왜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는가? 사랑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감정이다.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바랄 때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게 된다.

플라톤의 사랑, 즉 에로스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보면, 에로스는 풍요로움과 빈곤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에로스는 풍요와 빈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빈곤한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며 끝없이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 우리가 사랑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감정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오는 빈곤함도 느낀다. 따라서 그 결핍을 매우기 위해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한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의 정도는 점점 커지고, 빈곤하지 않을 영원한 풍요로움에 한 걸음 씩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해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화 된 관계를 우선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을 ‘좋은 것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이해한다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해질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가령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철학자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 사람을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 사랑의 양태는 인간 대 인간의 사랑, 그 중에서도 연애나 혼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태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앞서 말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나 ‘부모자식간의 사랑’ 등의 넓은 범위의 사랑에 대해서는 잠시 한 쪽으로 치워두는 편이 좋겠다.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관계를 우선적으로 사랑을 이해한다면 정당화된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사랑은 좋지 아니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그런 사랑에 대한 오해가 정당화되지 않은 관계의 사랑은 비-윤리적이라는 오해로 귀결되

어 정당화된 관계 이외의 사랑을 탄압하게 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이해는 시정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앞서 알아본 사랑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을 적용시켰을 때, 정당화된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채 탄압받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의 필요로움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 좋음'이 개개인마다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랑의 양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성애나 양성애 등의 흔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랑이라도, 정말 그 주체가 자신의 ' 좋음'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랑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의문점이 든다. 사랑이 정말 '좋은 것의 필요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이해된다면, 우리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여기서 나온 ' 좋음'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마칠 필요가 있다. 플라톤 본인이 ' 좋음'의 본질에 대해서 내린 구체적인 해답을 파악하지 못했고,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좋음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해 옳음으로 나아간 위대한 철학 고전 『국가』에서나, 아름다운 것에 대한 『향연』에서나 언제나 ' 좋음'은 전제되지만 아직 나는 그 전제되는 ' 좋음'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다른 ' 좋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 역시 많은데, 가장 많은 논의를 윤리학에서 다룬다. 그만큼 좋음과 옳음의 관계는 중요하며, '좋은 것의 필요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로서의 사

랑에서 그 ‘ 좋음 ’이 옳지 못한 것이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규범에 의해 속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해볼 문제인 듯하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관계에 의존해서만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이해로 여러 양태의 사랑이 주로 정당화되는 -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는 - 사랑의 양태에게 탄압받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껏 자연스러움에 취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였다. 사랑은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껏 정당화된 관계의 노예로 부려지던 사랑에게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 자유로울 우리를 위하여.

디오니소스제 준비단의
디오니소스제 / 『우리시대』 후기

강유찬 : 철학과에 들어온 후 무의미하게 2년을 보내 아쉬웠는데 2학년이 끝나기 전 유의미한 활동을 한 느낌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터뷰 하면서 화면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으며 많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었고 철학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디오니소스제는 큰 행사를 디오니소스제 준비단 분들과 같이 준비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과정은 개인적으로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학우분들 모두 캠퍼스에서 만나 함께 웃고 떠들며 철학에 관한 얘기도 나누기를 기원하며 이만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철학과 학우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_)_

김아연 : 디오니소스제 준비단 정말 재밌고 저에게 뜻 깊었던 기회였습니다. 사랑에 대해 배운 것도 많고 교수님들 말씀도 참 흥미롭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또 학부생 인터뷰하며 수업 안 듣는 친구들인 줄만(농담인거 알지?) 알았는데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도 알게 되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서 철학하는 재미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준비단 하면서 정말 철학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철학과에 대한 애정이 듬뿍듬뿍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너무너무너무 게을러서 고생하신 우리 준비단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번에 욕심부리면서 기획글 늘리는데 다 받아주시고 편집하랴 재촉하랴 가장 고생하신 총무님 성진 선배님께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졸업 축하드립니다! 사과대님 성수 선배님도, 부회장님 민수 선배님도 다들 졸업 축하드려요! 그리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디오니소스제, 우리시대 참여해주신 모든 학부생과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숙하고 폐도됐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철학과 여러분 사랑해요♥

박성진 :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학술제를 준비하는 것도 처음이고, 학과 학회지를 준비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생각보다 바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디오니소스제 준비단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 학기이고, 그러다 보니 제가 참여하는 마지막 디오니소스제를 제가 직접 준비했다는 점에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오묘한 기분이 듭니다. 유사유종,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고 이 걸 체험하는게 처음도 아닌데 이상하네요.

준비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철학과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잘 매듭지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승우 :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2021년도 철학과 생활은 어땠느냐고 물음을 던진다면, 저는 디오니소스제 준비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약 2달 가까이 디제를 준비하며 배운 것이 많습니다. 낯설었던 철학과와 철학에 더욱 친해질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황리에 디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 기쁘며, 준비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 많이 쓰신 성진 형님과 아연, 유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디오니소스제 연혁

1회 (1973. 10. 29) - '동서 철학의 만남'

2회 (1979) - '현상학의 본질'

- 후설의 현상학 - 이영호 (성균관대 교수)
-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 - 김용정 (본교 교수)

3회 (1980) - '고대 철학의 제문제'

- 희랍사상에 있어서의 디오니소스의 의의 - 박종현 (성균관대 교수)
- 종교는 기존 가치를 부정하는가 - 황필호 (덕성여대 교수)

4회 (1983) - '현실과 철학'

- Hegel의 변증법과 역사 - 이석운 (본교 교수)
- 노자의 도와 덕 - 김항배 (본교 교수)
- 현실과 인식 - 황경식 (본교 교수)

(본래의 명칭이 아닌 “봄철 Dionisos 83년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

5회 (1984) - '현대 철학에의 접근'

- Wittgenstein의 이해를 위한 소고; 그의 윤리관을 중심으로 - 3학년 윤용택
- 중국 본체론에 대한 고찰;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는 목자 - 3학년 유훈우
- 현대 Humanism의 방향성을 구하는 시론 - 3학년 이준호

6회 (1985) - '현대 철학의 제문제'

- J. Locke의 언어관에 관한 고찰 - 3학년 신기훈
- 예술 철학으로 본 심미주의 - 3학년 엄규섭
- H. Marcuse와 K. Popper의 사회인식에 관한 고찰 - 2학년 양우성

7회 (1986) - '공동체적인 삶을 위하여'

- 논문 주제: "인간 해방 사상에의 접근"
-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 황필호 (본교 교수)
- 공자의 인본주의 철학사상 - 3학년 유병래
- 개체와 공동체에 대한 사회존재적 해석 - 3학년 홍상철

8회 (1987)

-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소외의 문제 - 김용정 (본교 교수)
- 민중불교와 해방신학 - 황필호 (본교 교수)
- 맹자의 사회사상, 修己와 治人을 중심으로 - 3학년 이희욱
- 변증법적 유물론에 있어서의 모순개념에 대한 고찰, 모택동의 모순론을 중심으로 - 3학년 정용식

9회 (1988) - '변혁적 세계관으로서의 철학'

- 『경세유표』연구 서설 - 박사과정 이유진 / 논평 - 석사과정 유훈우
- 선진시대 정명사상의 전개과정 - 2학년 이진희 / 논평 - 4학년 이희욱
- 과학적 공산주의의 기초 - 3학년 송병철
- 주체사상 비판 시론 - 3학년 신상기 / 논평 - 4학년 심응래

10회 (1989) - '만남에서 자유, 그리고 해방으로'

- 12세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본 삼국유사 - 3학년 김성호
- 유물 변증법과 정치 경제학 - 3학년 조극훈
- 여성해방 일반론 - 2학년 박민미

11회 (1990) - '철학적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 스피르크스의 실수 - 2학년 홍진기
-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일고찰 - 사회철학 연구팀

12회 (1991) - ‘앞의 추구; 그 방법으로서의 철학’

- 철학사를 통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3학년 홍성훈 / 논평 - 석사과정 함원규
- Marxism의 총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학년 신승철 / 논평 - 석사과정 조극훈

13회 (1992)

- 현대 유학의 방향 - 4학년 유만춘 / 논평 - 박사과정 유훈우
- 과학법칙의 형식적 성격에 대한 연구 - 4학년 이진희 / 논평 - 석사과정 김영진

14회 (1993)

-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힘들고 드문 길” - 3학년 안국준 / 논평 - 석사과정 김영진
- 신의 현존에 관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논증고찰 - 3학년 문경환 / 논평 - 석사과정 홍성훈

15회 (1994)

- 철학의 위기는 없다 - 김용정 (본교 교수)
- ‘존재론적 탐구’에 의하여 의미되는 것은 무엇인가 (석사과정 김영진)
- 노신의 영명한 철인과 니이체의 ‘위버맨쉬’ - 4학년 엄성훈 / 논평 - 석사과정 유만춘

16회 (1995) - ‘더이상 주제는 없다’

- 이론과 실천 - 이석윤 (본교 교수)
- 수리철학 - 3학년 이숙경

- 자끄 라캉의 언어철학 무의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 4학년 이은정 / 논평 - 석사과정 신재용
- 中國哲學의 始發 孟荀에 나타난 性의 一考察 / 논평 - 박사과정 이 후덕

17회 (1996) - '혼돈과 질서'

- 혼돈과 질서 ;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며 - 최인숙 (본교 교수)
- 기하학의 철학사적 영향에 대한 고찰 - 수리철학 학회 (4학년 이숙 경, 2학년 조현서, 박구현)
논평 - 박사과정 이진희
- Platon의 Idea론 - 서양철학 학회 (4학년 윤수환, 인문학부 1학년 김 은주, 신기철, 이해수, 황은경)
논평 - 박사과정 홍성훈

18회 (1997) - '대립과 초월'

- 강연 - 유현우 (본교 교수)
-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고찰 - 4학년 김정태 / 논평 - 박사 과정 홍성훈
- 생명조작과 생태계의 위기 그리고 생명가치 - 4학년 김창규 / 논평
- 석사과정 남정우

19회 (1998) - '이제는 자유로 간다'

-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적 방법으로서의 '분석'과 '종합' - 양문흠 (본 교 교수)
- 退溪의 四端七情論 『退高 四七往復書翰』分析을 中心으로 - 4학년 김 명식
- 객관적 관찰에 대하여 - 3학년 신기철

20회 (1999) - ‘21세기, 철학은 어디로 가는가’

- 21세기 철학의 문제들 - 홍윤기 (본교 교수)
- 인식경향으로 본 전통적 정의관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비교 - 4학년 조홍규
- 논평 - 박사과정 박민미

21회 (2000) - ‘Break The Wall’

- 현 단계 한국 철학도의 과제 - 강유원 (본교 출신 철학 박사)
-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 4학년 권재현
- 데카르트와 화이트헤드 철학에서의 이성개념 비교 - 4학년 윤준영

22회 (2001) - ‘Modernity’를 찾아서

- 21세기 한국 철학 연구의 방법 - 김충열 (연세대 석좌교수)
- 계몽주의의 담론적 분석 - 4학년 남성일 / 논평 - 석사과정 권재현
- 베이컨과 우리 사회 20, 30년대 지식인 - 4학년 이승준 / 논평 - 석사과정 신승철
-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 4학년 강병우 / 논평 - 박사과정 남정우
- 『신기관』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지배의 이상’ - 4학년 김정신 / 논평 - 박사과정 박민미
-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의 비교 - 4학년 서인철

23회 (2002) - ‘나 그리고 우리’

- 儒佛道 이론 교섭사에서 道家的 世界觀 이해의 중요성 - 허인섭 (본교 동서사상연구소 연구 교수)
- 호르헤 수도사와 불목하니들 : 소설 《장미의 이름》을 통해서 본 중세 말의 몇 가지 상징들 - 4학년 신기철 / 논평 - 석사과정 남성일

24회 (2003) - 'Here and Now'

- 나에게 있어서 철학은 어떤 의미인가 - 김영건 (서강대 강사)
 - 朱熹 人物性論에 나타난 理氣 關係에 대하여 - 4학년 이승원 / 논평
 - 박사과정 김명식
 - 도가와 불교의 차이점과 접합점 : 노자 『도덕경』과 나가르주나 『중론』을 중심으로 -
- 4학년 김대근 / 논평 - 박사과정 김현수

25회 (2004) - '철학을 공부할 마음은 있는가'

- 철학을 공부할 마음은 있는가 - 강유원 (서강대 강사)
- 인상과 관념의 구분에 대한 흄의 논변 고찰 - 3학년 신승우
- 자유의 진정한 의미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재해석한 장용학의 [요한 시집]을 중심으로 - 1학년 전해리

26회 (2005) - '爲己之學 爲人之學'

-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철학을 하는가 - 김교빈 (호서대 교수)
- 수학적 판단의 성질 :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중심으로 - 2학년 장보연 / 논평 - 허유선(석사과정)
- 마르크스 사상의 소개 - 4학년 이재광

27회 (2006) - '철학함을 즐겨라'

- 한국에 있어서 유불도 사상의 융섭 - 김항배 (본교 명예교수)
 - 의식의 현상적 특성과 복합적 개념 - 4학년 김진원 / 논평 - 박사과정 홍성훈
 - 철학하기에 관하여 철학하기 제1작업 ; 데카르트의 cogito에 관한 私的 해석 - 4학년 성다움
- 논평 - 박사과정 허유선
- 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견해 비판 - 1학년 박슬기 / 논평 - 석사과정

장운혁

28회 (2007) - ‘죽음’

- well dying - 오진탁 (한림대 교수 / 생사학연구소장)
- 죽음을 인정하라. 삶을 얻을 것이다 - 4학년 조영훈 / 논평 - 이승준(박사과정)
- 선진유가를 통해서 본 죽음과 삶의 문제 - 4학년 임효택 / 논평 - 황인욱(박사과정)

29회 (2008) - ‘문화, 철학에 취하다’

- 디자인과 삶의 철학 - 김민수 (서울대 교수)
- 국화와 칼 : 일본문화의 틀에 대한 소고 - 3학년 설은표

30회 (2009) - ‘사상, 도 서. 관.(도저히 알 수 없는 서로의 관계)’

- 관계 그리고 철학 - 김항배 (본교 명예교수)
- 사랑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 - 3학년 윤형석 / 논평 - 장운혁(박사과정)
- 본래적 가치로서의 사랑 ; 88만원 세대를 중심으로 - 4학년 윤소담 / 논평 - 허유선(박사과정)

31회 (2010) - ‘고통’

- 도덕체계에서 고통의 역할 - 4학년 임태훈 / 논평 - 황인욱(박사수료)
-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의 숭고 - 3학년 김성제 / 논평 - 한병준(박사수료)

32회 (2011) - ‘시간’

- G.E.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 분석 - 4학년 박슬기 / 논평 - 장운혁(박사과정)

- 음악적 시간의 존재론 - 2학년 신정옥 / 논평 - 남정우(본교 출신 철학 박사)
- '선분의 비유'와 「파이돈」을 통해 본 이데아 - 2학년 이민열 / 논평
- 허유선(박사수료)

33회 (2012) - '현상과 실재'

- 철학사에 있어서 현상 - 실재 담론(그 개념편제형태와 정당화 방식의 역사적 변화) - 홍윤기(본교 교수)
- 중국철학의 본체와 현상 - 유훈우(본교 교수)
- 서양 현대철학에서 '현상과 실재'의 문제(현대철학에서 '현상과 실재' 이념의 변용과 그 일상적 적용을 중심으로) - 김영진(경기대 교수)
- 음악작품과 정자의 정서간의 관계 고찰 - 3학년 신정옥 / 논평 - 박슬기(학사수료)
- 이항로의 심설논의와 위정척사사상의 연계 - 4학년 강한겨레 / 논평
- 이승원(박사과정)
- 칸트철학에서 이성과 신앙의 관계 - 2학년 송성아 / 논평 - 천동환(3학년)

34회 (2013) - '욕망'

- 칸트와 맑스의 자유개념(칸트의 '초월적 자아' 개념과 맑스의 '대상적 활동'의 개념과 관련해서) - 3학년 송성아 / 논평 - 이진원(석사과정)

35회 (2014) - '철학을 만난 나의 삶'

- 21세기 한국에서의 니체 해석에 관하여(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 3학년 조혁기
- 컴퓨터, 사고, 그리고 지향성 - 4학년 김일주 / 논평 - 박슬기(석사과정)

36회 (2015) - ‘미래’

- 사르트르 실존주의를 이용한 칸트 의무론의 보충 - 2학년 박정현 / 논평 - 이민열(4학년)

37회 (2016) - ‘소수자Minority, 우리 안의 난쟁이’

- 소란스러운 연대 - 박민미(본교 강사)
-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해야 하는가 : 筭子적 세계관내 공부론 - 3학년 전지훈 / 논평 - 이민열(4학년)
- 모순담론 : 양심과 그 위선 - 헤겔 철학을 중심으로 - 2학년 유성수 / 논평 - 류희철(3학년)
- 송고와 경험 - 2학년 조지환 / 논평 - 김성제(석사과정)

38회 (2017) - ‘페미니즘 : 찢고, 뒤집고, 무너뜨리기’

- 철학의 타자는 말할 수 있는가? :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다리,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교차로” - 김은주(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헬조선을 망치러 온 구원자, 헬페미 - 윤김지영(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 비체화(아브젝션)로 인해 억압되는 여성의 신체와 권력 연구 :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시적 언어의 혁명』이 주목하는 ‘부정성’개념을 중심으로 - 1학년 권수정
-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 근대철학으로의 전회 -코기토의 발견과 실체 개념을 중심으로 - 4학년 류희철

39회 (2018) - ‘나(I)’

- 나를 아는 길 : 자연적인 길, 초월적인 길, 그리고? - 김영진(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 예술들, 검열, 교육 - 4학년 조지환 / 논평 - 김성제 (석사)

- ‘지칭되는 것’에 대하여 - 2학년 김기동 / 논평 - 임재민(석사과정)

40회 (2019) - ‘죽음’

- 동서양 종교와 철학의 기초 : 죽음 - 유훈우(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 언어, 대중음악, LANGUAGE - 유성수(3학년) / 논평 - 김기동(3학년)
-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있는가? - 벤자민 리벳의 뇌 과학 실험을 중심으로 - 박정현(3학년) / 논평 임재민(석사과정)

41회 (2020) - ‘연결’

- 특별 기고글 : 2020 디오니소스제 “연결”(최인숙, 본교 명예교수)
- 연결, 가장 마지막과 처음 : 당신은 어떤 연결을 묻습니까?
허유선(본교 강사)
- 기술적 복제시대 이후의 예술작품 - 대중음악 - 유성수(4학년) / 논평 조지환 (서울대 철학과 석사과정)
- 트랜스휴먼과 AI는 인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 익명

42회 (2021) - ‘사랑’

-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하나됨의 사랑에서 둘됨의 사랑으로’ - 임지연 교수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문학평론가)
-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나타난 사랑의 다중적 의미 - 박성진(4학년) / 논평 조지환 (서울대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석사과정)
- 경험 기계에 들어갈 것인가? :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불교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이수안(1학년) / 논평 강유찬(2학년)

서른세 번째 우리시대 : 사랑

발행일	2021. 11. 8.
글쓴이	동국대학교 제 68대 철학과 학생회
발행처	동국대학교 제 68대 철학과 학생회
기획	강유찬, 김아연, 박성진, 조승우
편집	박성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표지 디자인	mooya&ggul

